

碩士學位請求論文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의 과제와 대응방안

A Study on the Investment Performance of Korean
Firms in China

2004年 2月

仁荷大學校 國際通商物流大學院

國際通商學 專攻

張 二 淳

碩士學位請求論文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의 과제와 대응방안

A Study on the Investment Performance of Korean
Firms in China

2004年 2月

仁荷大學校 國際通商物流大學院

國際通商學 專攻

張 二 淳

碩士學位請求論文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의 과제와 대응방안

A Study on the Investment Performance of Korean
Firms in China

2004年 2月

指導教授 崔 龍 錄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2003學年度 碩士學位 請求論文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의 과제와 대응방안

張 二 淳

指導教授 崔 龍 錄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2月 日

主 審 印

副 審 印

副 審 印

仁荷大學校 國際通商物流大學院

국 문 초 록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의 과제와 대응방안

인 하 대 학 교 국 제 통 상 물 류 대 학 원
국 제 통 상 전 공 장 이 순

본 연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투자환경을 고찰해 보고, 우리나라기업의 투자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중국의 WTO가입, 2008년 베이징 올림픽개최, 중국의 고도성장등 중국의 거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은 종전의 對중국 투자전략을 글로벌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간주하며 투자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국적기업이 중국의 WTO가입 전후 투자전략 변화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전략 조정, 제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베이징 등의 투자지역 집중화, 단독투자 강화, 인수·합병에 대한 관심 증가로 파악되었다.

또한 기술이전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에 필요한 기술 및 관련 응용기술의 지속적 이전과 중국 내수시장 지향의 응용기술센터 설립등이 기술이전의 특징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아직까지도 저임금 노동력 확보가 주요 투자 동기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투자가 여타지역에 비해 비중이 높고 투자규모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역별로는 환발해만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투자형태에 있어서는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경영상의 애로 요인으로는 중국의 법적·제도적 환경의 미비와 통관 및 세무, 대금회수, 현지상관습, 언어장벽, 인프라 미비 등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철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투자하는 우리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저임금 활용과 13억이라는 거대한 중국시장의 매력에 빠져 중국의 시장 환경 및 경쟁 환경, 내부의 역량등에 대한 사전 준비없이 투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기간내에 중국으로부터 사업철수가 이루어지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현지화 능력의 제고이다. 인적자원의 현지화, 원·부자재 조달의 현지화, 마케팅의 현지화, 자금조달의 현지화, 연구개발의 현지화가 필요하다. 즉 OEM 등 방식으로 다국적기업에 제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 다국적기업은 중국에 많은 구매센터를 설치하여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도 국제적인 품질인증의 획득을 통해 우리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기업의 생산기술이 중국보다 앞선 점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 및 경영의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가격경쟁의 열세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는 국내의 경영내부화 강화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컴퓨터, 가전, 의복과 같은 분야에서의 경우 한·중간의 경쟁에서 경합에 있는 산업이나, 한국이 우위에 있는 산업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에게 우위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중국시장내에서의 특허권이나 지식권의 보호가 필수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섬유, 신발등 소위 국내사양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제품생산의 KNOW-HOW를 바탕으로 국내생산시설을 중국으로 이전·생산함으로써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우리나라기업과 같이 중국에서 현지생산후 수출에 주목적일 둔 투자의 경우 원자재 및 부품공장등 중간재를 조달하기 위한 수직적통합이 중요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원자재를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기업의 해외경쟁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줌으로 수직적 통합이 중요하다 하겠다.

네번째로는 제도적 인센티브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하겠다. 중국정부는 도·농간,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부지역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최첨단기술을 가지고 중국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이 주투자 업종이나, 중국의 제조업시장은 이미 공급과잉으로 인해 매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우리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환발해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임금상승으로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위해서도 중국현지내 연구개발시설 및 유통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다섯째 무형자산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무형자산경쟁력은 타기업과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기업을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도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며, 브랜드이미지도 낮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비교열위로 전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 투자기업들은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전념해야 한다. 중국 소비자들은 고가 및 고급이미지 제품을 모방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한류 및 스포츠를 활용하여 최근 중국사회내에서 신장되고 있는 여성 및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로는 세분화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중국은 지역별로 외부환경이 상이함으로 시장을 세분화하여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집중 공략하는 것이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유능한 국제경영인을 육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the Investment Performance of Korean Firms in China

Jang, Lee Soon

Major in International Transpor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Trade and Logistics

Inha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China which is rapidly growing and to propose investment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accordingly. The research has found that multinational enterprises are re-adjusting their investment strategies toward China as an axis of a global networks because the environment of China is changing on large scale as China becomes a member of WTO, hosts 2008 Beijing Olympics and grows rapidly.

Multinational enterprises are adjusting their investment strategies in the manufacturing fields, increasing their investment amount in supporting sector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of manufacturing fields, focusing investments in Beijing. Also, there is tendency toward, increasing individual investments and increasing interest in M&A.

Technologies are continually transferred, and centers for applied technology transfer are established. The main reason for Korean companies to invest in China based still on the low labor cost, wherein Korean investments are mainly made by small businesses, whose amount of investments are relatively small, and the investments are focused on the Coastal regions, Korean companies

preferably make individual investments there.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has found the managerial difficulties owing to unfavorable China's legal, systematic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also the custom clearance, taxation, collection of money, commercial customs and practices, insufficient infrastructures of China.

To make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China active, first, efficient pre-feasibility study should be made in advance. Korean companies are still making investments in China without investigating the market environment, competition condition and internal situation. The huge Chinese market with 130 million population provides low labor cost. As a result, Korean companies frequently could not survive China go for long-run..

Second, Korean companies need to raise their adaptability to Chinese conditions. Human resources, and materials should be provided from China. In addition, marketing, fun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should be made there. They should be able to supply products to multinational companies by means of OEM because multinational businesses establish lots of purchase centers in China to Chinese products, so Korean companies in China should seek opportunities for supplying their products by the international qualification certification and take advantage of Korean superior production technology. To this end, they should actively seek to localize their production and management, thereby overcome their weak points in local competition.

Third, Korean companies in China need to strengthen their internal management strategies home and abroad. It is necessary for Korean companies to protect their patent rights and proprietary rights in Chinese market in order to maintain their superiority in the industries in which Korea is superior to

China by taking advantage of low labor cost. Furthermore, they can be more competitive in China on the basis of their superior production Know-how in the industries of textile, shoes, etc. which are losing competitiveness in Korea by moving their domestic production facilities to China. Moreover, it is necessary that in the case of mainly exporting goods produced in China, they need to be vertically integrated so as to supply raw materials and parts such as interim materials because the stable supply of materials for a long term via the vertical integration for supplying materials can have great effect upon Korean companie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urth, systematic incentives need to be implemented actively. The Chines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its western part in order to reduce the differences between regions, cities and farm communities, and also trying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from countries which have cutting edge technologies in various ways to improve its technological power. Korean companies are mainly investing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Coastal region in which Korean companies are investing is also losing its appeal due to the increasing labor cost. So as to occupy a superior position in competitions with advanced countrie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research and development facilities in China to help develop technologies needed by China.

Fifth, Korean companies need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in intangible assets. The competitiveness in intangible assets is a driving force for maintaining superiority in competition with other companies and for the growth of a company, so it is essential to raise the competitiveness. Korea could fall behind advanced countries and even with China long term. Therefore,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should concentrate on the development of

productivity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Chinese consumers tend to prefer imitatively high-quality products.

Sixth, strategy is needed. Since Chinese environment is yet new to Korean companies, they need to establish detailed goals customized to activate Korean investments in China. Lastly, this study proposes that well-experienced international managers should be and trained, more systematically.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2
제2장 해외직접투자의 이론적 고찰	4
제1절 해외직접투자의 개념과 특징	4
제2절 해외직접투자의 선행연구 분석	5
1. 기술우위 요소적 연구	5
2. 입지우위 요소적 연구	7
3. 진입관련 연구	8
4. 동태적 연구	11
5. 절충 및 종합연구	12
제3절 선행연구의 평가와 연구의 기본방향	17

제3장 중국경제발전 현황과 투자환경 분석	18
제1절 대중국 투자 환경분석	18
1. 경제적 환경	18
2. 사회문화적 환경	26
3.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	28
4.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	33
제2절 중국진출의 타당성 검토	36
1. 중국진출의 기회요인	36
2. 중국진출의 위협요인	45
제4장 대중국투자현황과 한국기업의 과제	52
제1절 다국적기업들의 대중국 진출 추이	52
1. 투자전략의 변화	52
2. 기술이전 전략의 변화	58
제2절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현황	61
1. 대중국 투자의 권역별 분포와 변화	61
2. 대중국 투자의 특징	65
3. 대중국 투자기업의 청산현황 분석	76

제3절 한국기업의 대중국 경쟁력분석	83
1. 한국기업의 경쟁력 분석	84
2. 우리기업의 진출 과제	89
제5장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대응방안	97
제1절 현지화 우위전략	97
제2절 경영내부화 전략	101
제3절 제도적 인센티브의 적극적 활용	102
제4절 무형자산의 경쟁력강화방안	105
제5절 시장의 세분화 및 차별화전략	107
제6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3

<표 목 차>

<표2-1> 해외직접투자이론의 설명력 비교	10
<표2-2> 기업특유의 우위요소	13
<표2-3> 절충이론에서 내부화의 우위요소	13
<표2-4> 절충이론에서 입지특유의 우위요소	13
<표3-1> 중국의 일반적 개황	19
<표3-2> 중국의 경제현황	20
<표3-3> 최근 5년간 중국의 경제적 성과	21
<표3-4> 중국의 사회 문화적 지표	27
<표3-5> 중국 각 개발구역 법인세율	32
<표3-6> 기관별 중국경제 장기전망	35
<표3-7> 중국정부의 향후 50년 성장전망	36
<표3-8> 제조업 한·중 임금변동 추이비교	38
<표3-9> 중국의 대학생 추이	40
<표3-10> 중국 수입시장의 크기 변화	41

<표3-11> 주요지원의 총수급량대비 중국의 수급비중	43
<표3-12> 확인매장량으로 본 중국의 지하 광물자원	44
<표3-13> 국유기업이 제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46
<표3-14> 제조업의 적자기업비율 및 국유기업의 총자산이익율추이	47
<표3-15> 4개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47
<표3-16> 재정적자 규모 추이	48
<표3-17> 중국의 도시 실업율 추이	49
<표3-18> 도시·농촌간 소득 및 소비격차 추이	50
<표3-19> 1인당 GNP	51
<표4-1> 다국적기업의 대중국 예상 투자 규모	55
<표4-2> 대중국 외국인 투자의 지역별 현황	56
<표4-3> 중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형태	57
<표4-4> 한국의 대중국 지역별 투자현황	63
<표4-5> 중국 투자의 동기	67

<표4-6> 중국현지법인의 매출구조	68
<표4-7> 한국의 대중국 업종별 투자현황	70
<표4-8> 한국의 대중국 기업규모별 투자현황	71
<표4-9> 대중국 연도별 투자 규모	73
<표4-10>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과 특징	74
<표4-11> 주요 대기업의 중국 투자 진출현황	75
<표4-12>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청상 현황 추이	77
<표4-13> 기업규모별 청산비율현황	77
<표4-14> 업종별 청산비율 현황	78
<표4-15> 지역별 청산비율 현황	79
<표4-16> 투자형태별 청산비율 현황	80
<표4-17> 기업규모별 투자후 청산까지 소요기간	81
<표4-18> 업종별 투자후 청산까지 소요기간 현황	82
<표4-19> 우리나라와 주요국과의 노동생산성 비교	85

<표4-20> 대외브랜드 이미지와 핵심인력유출 정도의 국가별순위비교	86
<표4-21> 국내외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88
<표4-22> 인적자원 관련 경쟁력 순위	89
<표4-23> 주요 국가별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90
<표4-24> 중국 10대 수입국의 중국시장 점유율 증가현황	91
<표4-25> 중국 수입시장의 국가별 점유율 추이	92
<표4-26> 상대시장에서 자국상품의 점유율 추이	93
<표4-27> 한·미·중·대만간 주요경쟁품목의 중국시장 점유율	94
<표4-28> 일본의 10대 수입국가 및 시장점유율 추이	95

<그림목차>

<그림2-1> 종합이론	15
<그림3-1 > 중국성장 요인의 순환	32
<그림3-2> 중국물가 및 성장률 추이	5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한·중수교 이후 10년 동안 양국은 경제교류측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양국간 교역은 1992년 63.7억달러에서 2002년에는 411.5억달러로 약6.5배나 증가하였다. 중국은 이제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나타내는 각종지표에서 미국·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가장 긴밀한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규모도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 최대투자대상지로 올라섰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중 대중국투자는 1,321건 8억7,400만달러로 전년의 1,028건 5억7,500만달러에 비해 각각 28.5%, 52.0%증가하였다. 특히 2002년중 전체에서 차지하는 투자 건수 및 금액비중이 각각55.3%, 29.7%를 기록하여 중국은 연간투자액기준으로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중국투자러시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WTO가입,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등으로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매년 7%이상의 고도성장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생산비절감을 위한 단순 가공형 제조기지로의 활용뿐만아니라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중국 진출을 꾀하고 있다. 투자분야도 섬유등 단순가공분야에서 전자, 통신, 자동차등 대규모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투자의 패턴이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는 여전히 줄속으로 이루어 지는 감이 없지 않다. 많은 기업들이 철저한 사업타당성 분석과 검증없이 비용절감과 엄청난 내수시장만을 믿고 선부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상당수가 투자이후 기업운영에서 사업철수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진출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기업의 철수 건수 및 규모는 1993년 첫 사업철수 사례가 발생한 이래 2002년말 현재 각각 152건 8억5,72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동기간 동안 우리나라 대중국투자 7,293건에 64억 5,200만달러의 건수대비 2.1%, 투자금액대비 13.3%에 해당된다. 특히 2001년에는 사업철수 규모가 신규투자 규모를 초과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순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KOTRA중국무역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성공확률은 5%미만이라고 한다.¹⁾ 대중투자의 실패는 곧 국가재산의 손실과 외화낭비를 초래함과 동시에 막대한 국부유출을 야기하고 국내산업의 공동화라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중국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기업들의 중국직접투자 현황과 중국진출후의 애로점 등을 파악하여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세계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기업들의 대중국 직접 투자의 현황과 동기를 살펴봄으로서 대중국투자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총6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2장에서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현황과 투자환경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진출의 타당성을 검토해보았다. 제4장에서는 대중국 주요국 투자기업들과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과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해봄으로서 한국기업의 대중국진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대응방안을 현장지향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 KOTRA, 중국무역관 2002 보도자료 참조.

본 연구는 논제와 관련된 각종 문헌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활용한 문헌연구이다. 국내·외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통계자료 및 보고서 그리고 연구논문과 관련기사등을 참조하였으며, 특히 표나 수치 등은 가능한 최신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Internet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제 2 장 해외직접투자의 이론적 근거

제 1 절 해외직접투자의 개념과 특징

해외직접투자는 피투자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가함을 목적으로 자본, 경영능력, 기술, 상표 등의 생산요소를 복합적으로 해외에 이전시키는 기업활동이라 할 수 있다. 위의 개념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동기면에서 단순히 이자나 유동성 확보만을 지향하는 유가증권투자 또는 배당소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매입과는 달리, 해외사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경영지배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 해외직접투자는 그 구체적 형태면에서 단순히 화폐적 형태의 자본이동 뿐만 아니라 유형무형의 경영자원, 즉 외면상으로는 경영자를 중핵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영관리상의 지식과 경험, 특허(patent), 노하우(knowhow)는 물론 '마케팅' 방법 등을 포함한 광범한 전문적·기술적 지식, 판매·원료구입·자금조달 등 시장에 있어서의 지위, 상표 혹은 신용, 정보수집·연구개발을 위한 조직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이전을 의미한다.

셋째, 해외직접투자는 자본의 수출인 동시에 기업의 수출로서 한 국가의 기업이 국내지향 및 수출지향에서 현지생산지향 및 세계지향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현재까지 해외직접투자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들 이론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²⁾ 즉,

- ① 왜 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선택하는가 ?
- ② 기업은 어느 국가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는가 ?
- ③ 기업은 언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가?

2) Franklin R. Root,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5th ed., Clincinnati:South-Western Publishing Co.,1984, p.455.

④ 기업은 투자국에 어떻게 진입하는가?의 네가지 문제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해외직접투자의 선행연구 분석

기존의 해외직접투자이론은 세계 제 2차 대전후 미국 기업의 대 서유럽, 이후에는 후진국에 대한 제조업분야의 투자를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³⁾ 산업조직이론의 Hymer(1976) 나 Caves(1974)와 같은 학자들은 해외 진출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감안했을 때, 다국적 기업은 현지 기업과 경쟁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어떤 독점적 기업우위요소를 보유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 기업이 타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현지 기업에는 필요하지 않는 일련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열위를 상쇄시키려면, 성공적인 해외기업은 현지 기업이 갖고 있지 않은 자산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업우위요소의 개념이 해외직접투자가 특정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여러 가지 대안 중, 특정지역을 선택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일부 학자들은 입지우위와 같은 다른 변수를 충분조건으로도 도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기업우위요소와 입지우위요소를 결합한 개념(Dunning, 1981)으로도 비슷한 기업우위요소와 입지우위요소를 갖는 두 기업이 있을 때, 왜 한 기업은 해외투자를 선택하고 다른 기업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1. 기업우위 요소적 연구

처음에는 해외직접투자를 국제자본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다음

3) 문휘창, “해외직접투자 동기, 글로벌 조정 및 진입유형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2002. 11권, pp.1-5참조.

의 두가지 이유(Dunning, 1981)⁴⁾로 곧 사라졌다. 첫째, 해외투자는 자본뿐 아니라 다른 자산의 이동(예를들면, 기술, 경영기법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기업을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은 자본보다는 다른 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이다. 둘째, 이러한 자산은 기업외부를 통하기 보다는 내부에서 이동되므로, 두 개의 독립적 내부 조직에 대한 통제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동된 자산은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다.

실제로 자본이론을 이용한 분석은 외환시장과 국제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강조함으로써 통화 프리미엄과 같은 우위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우위요소는 특정기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통화구역 내의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것이다. Aliber(1970)에 따르면, 이 경우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대상국에 대해 누리는 우위는 국제금융시장에 있다고 했다. 이 이론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해외 직접투자의 진행방향을 잘 설명한다. 미국에 뒤이은 독일이나 일본의 막대한 대외 투자나 1970년대와 1980년대 이루어졌던 유럽기업의 대 미국투자의 급격한 증가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만으로는 해외직접투자액의 산업 내 분배와 동일 통화지역에서의 동일 산업 내 상호교차투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었다.

국제자본이론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게되자, 여러 가지 다른 시도가 있었다. 현대 해외직접투자이론의 기본 핵심은 현지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해외기업은 외국비용(cost of foreignness)을 보상할 수 있는 우위요소를 가져야 한다는 간단한 명제이다. Buckley(1985)⁵⁾는 이 명제가 해외직접투자를 자본이동이론으로부터 산업조직이론으로 옮겨왔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것은 완전 시장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국의 경제환경에 대해 훨씬 양질의 정보를 갖고 있는 현지 기업이 외국 진입 기업과의 경쟁에서 항상 유리하기 때문이다.

4) Dunning, J.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81.

5) Buckley, P. *A critical view of theories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1985.

현대 해외직접투자이론의 시작은 Hymer가 1960년에 쓰고, 1976년에 발표한 박사학위논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논문 외에도 기업특유의 우위요소에 초점을 둔 몇가지의 가설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Jonhson(1970)은 상위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면서, 과학 지식이나 기술 인력은 공공재의 특징을 가질 때 비로소 특별한 우위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⁶⁾ 이는 자회사가 그런 기술을 개발한 모회사에 추가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기업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Caves(1974)는 중요한 우위요소로서 제품차별화 능력을 꼽았는데 이로써 기업은 동시에 여러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했다. 기술과 더불어, 기업규모등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가 있었다.(eg. Horst, 1972; Wolf, 1977) 그러나 여전히 기업우위요소의 보유만으로는 특정 지역의 선정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고, 특정 국가의 입지우위 요소들을 설명에 포함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2. 입지우위 요소적 연구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투자본국과 투자대상국의 지리적 요건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중 한 쪽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크다. 투자본국의 요건,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는 본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및 제도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여러 산업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미국 정부의 과학교육 정책을 중요한 변수로 들 수 있다.(Dunning, 1981), 반면 Vernon(1979)은 요소조건과 시장 구조가 기술 혁신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Porter(1990)는 기업중심의 특정 변수들과 본국의 경제 변수를 종합한 더욱 포괄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⁷⁾ Porter(1990)의 국가 경쟁력에 관한 모델은 포괄적이면서도 역동적이다. 그러나 해외활동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다고는 할 수

6) Johnson, H, "The efficiency and welfare implic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In C. Kindleberger, 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1970.

7) Porter. M. 1986.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 The Free Press.

없다.⁸⁾

Kojima(1978)와 Ozawa(1979)는 미국과 일본의 지리적 요소 차이에 대한 경제적 구조 분석을 통해 이 차이가 양국의 해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연구하였다. Kojima는 미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역무역지향적 성향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는 자본수출국의 우위산업으로부터 자본 유출이 일어남으로써 무역의 기반이 약화되며, 그 결과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의 대체재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의 투자는 무역지향적 성향을 지니며, 일본의 비교우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비록 이 이론에 관한 논쟁과 비판이 있지만, 이것은 국가에 따라 다른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특유의 요소들과 제도적 틀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투자대상국의 입지요소, 특히 중요한 지리적 요소로서는 (1)수직적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원자재, (2)해외 생산기지를 위한 저임금 노동력, (3)해외직접투자를 시장 진입 우선 수단으로 만드는 보호시장 및 시장의 분열 등이 있다. (Buckley, 1985), 그러나 지리적 요인만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할 수 없다. 국적이 같고, 동종산업에 있는 두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들 두 기업은 똑같은 지리적 요건의 투자대상국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자. 그럴 때 왜 어떤 기업은 해외투자를 실행하는데 다른 한 기업은 그렇지 않을까? Dunning(1979)이 주장한 것처럼 해외직접투자의 지리적 접근법은 완전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이를 설명하지 않는다.

3. 진입관련 연구

내부화 이론은 왜 접근방식에 포함될 수 있지만, 어떻게 접근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왜냐하면 내부화 이론의 주된 목적이 진입방식, 즉 라이선싱, 수출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선호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선호를 설명하기 위해, 학자들은 코즈 정리(Coase

8) 자세한 내용은 Moon, Rugman, and Verbeke(1995, 1998)논문 참조 .

Theorem)와 거래비용 패러다임 (Williamson, 1975) 등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Buckley and Casson, 1976 ; Rugman, 1981 ; Hennart, 1982) 기본적인 논리는 기업이 외부시장을 대신해 기업 자체에서 거래를 내부화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시장을 이용하는데 드는 거래비용에는 적정가격을 찾는 비용, 양측의 의무를 규정하는 비용, 계약에 따르는 위험 그리고 시장 거래에 따르는 세금 등이 포함된다. 한편 Casson(1983)은 시장관련 비용에 두가지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첫 번째 형태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데 발생하는 설립비용이다. 두 번째 형태는 협상 및 거래 실행과 관련된 제반비용이며 이것은 거래규모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내부화의 개념은 해외직접투자이론에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주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이론은 다소 일반화된 수준에서 발전해왔다.

Buckley(1985)는 내부화에 대한 개념이 중복적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기업들이 추가 내부화에 대한 비용이 수익을 상쇄할 때까지 불완전 시장을 내부화시킨다고 보았다. Teece(1983)는 내부화 개념에 대한 설명력은 기업이 시장을 내부화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에 대한 분석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Casson(1984)이 지적했듯이, 내부화 이론은 내부화에 따른 비용보다는 이익에 훨씬 많은 비중을 두었고, 이 이론은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미약하다.

국제화는 흔히 국내 상품 다각화의 대안으로 간주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장진입의 또 다른 이론은 국내 상품의 다각화와 세계화 중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Horst(1972)는 이 선택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하였고, Wolf(1977)는 이 연구를 발전시켰다. Wolf의 이론적 배경에는 Penrose(1959)가 있었고 그는 특히 경영기법과 같이 저활용된 자원을 국내 혹은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활용된 자원의 기회비용은 제로에 가까우나 활용될 경우 정의 한계수입을 가능하게 한다. 이 이론의 난점은 저 활용된 자원의 대리변수를 찾는 데 있다. (Buckley, 1985). Wolf는 규모의 경제에 대한 대리변수로 산업별 기업의 평균규모를 사용했고, 기술력에 대한 대리변수로 전체 고용인원에 대한 기술인력의 비율을

선택했다. Wolf의 이론은 원래 다각화 방안의 선택을 설명하려는 것이었으나, 오히려 규모와 기술력을 구별해 낸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이론을 어떻게 진입하는가 보다는 왜 진입하는가로 구별하는게 더 타당하다.

위의 두가지 접근법(내부화와 다각화)의 초점은 본질적으로 해외직접투자의 선택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국제경영에서의 무역, 해외직접투자, 라이선싱 등 각기 다른 모드 중 최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택 방안들을 동시에 비용 - 수익 분석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 Hirsh(1976)는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간의 선택 모형을 발표했다. Casson(1979)이나 Rugman(1981)과 같은 학자들은 원래의 Hirsh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시도를 하였다. 이를 발전시켜 Moon(1997)은 6가지 각기 다른 진입모드를 구별하기 위한 통합 모델을 제시하였다.

<표2-1> 해외 직접 투자이론의 설명력 비교

이론	주창자	해외 진출의 동기	경쟁 우위의 원천	해외직접 투자의 선택 이유
포트폴리오이론	Stevens(1972), Prachowny(1972), Ragazzi(1973)	○	×	○
통화가치우위이론	Aliber(1970, 1972)	×	○	×
자본시장불완전이론	Ragazzi(1973)	○	×	○
자본형성이론	Jorgenson(1963)	○	×	○
기업성장동기이론	Penrose(1956), Kindleberger(1969)	○	×	○
독과점우위이론	Hymer(1960), Kindleberger(1969), Caves(1971, 74)	×	○	×
과점적경쟁이론	Knickerbocker(1973), Flowers(1976)	○	×	×
제품주기이론	Vernon(1966), Stobaugh(1968), Wells(1972)	○	×	×
미시·거시요인모델	Ozawa(1979)	○	○	○
내부화이론	Coase(1937), Arrow(1969, 1975), Rugman(1979), Williamson(1971, 75, 79), McManus(1972), Magee(1977), Buckley & Casson(1976), Hood & Young(1979), Moon(1997)	×	○	○
미시-거시절충이론	Dunning(1973, 79), Hirsh(1976), Parry(1975)	○	○	○

자료 : 조동성, 「국제경영학」 제2판, 1993, 경문사, pp233-262를 참조하여 재작성.

4. 동태적 연구

투자 시점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론은 상품주기 이론(Product cycle theory)이다. (Vernon, 1966 : Wells, 1972, 1983). 이 이론은 해외시장을 이용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를 동적인 배경 속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Dunning, 1981). 이 이론의 핵심은 투자대상국의 지리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은 제품이 신제품 단계에서 성장하여 표준화 단계에 이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사이에 대한 기업의 선택 역시 변하는 것이다.

이 이론은 초기 전후 시대에 미국의 대유럽 투자와 저임금국가에 대한 해외 생산 기지 건설 현상을 설명하기에 유용하다. 그러나 Vernon(1979)이 인정했듯이 이 이론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첫째, 이 이론은 다국적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제 신상품, 성장제품, 표준화 제품 단계를 거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차 없이 자사 상품을 각기 다른 나라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차별화 할 수도 있다. 둘째, 이 이론이 가정하는 것만큼 미국이 특별한 경우는 아니다. 대부분의 해외직접투자가 이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더 이상 미국 기업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Buckley(1985)가 주장했듯이,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의 가치는 다국적 기업의 성장이라는 동적인 부분을 강조했다는데 있다.

Buckley(1983)는 다국적 기업의 성장에 관한 역동적인 분석은 전략적 성과의 적시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초기 해외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의 진출형태의 변화(수출, 라이선싱,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기업의 성장방향까지도 이 논의 범위안에 포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Buckley와 Casson(1981)은 해외직접투자의 적절한 시기를 예측하는데 체계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시장 진출 형태의 세가지 비용, 즉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고정비용,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가변비용, 그리고 회수 불가능한 설립(Set-up) 비용을 고

려하면서, 진출 형태의 변화에 대한 간단한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5. 절충 및 종합연구

가. 절충이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일반론 후보 중 하나는 Dunning(1979, 1981, 1988, 1995)이 발표한 절충이론이다. 이것은 기업우위요소, 입지우위요소, 내부화의 패러다임을 근간으로 한다. 더닝은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기업 특유의 독점적 우위요소 이외에도 내부화의 우위와 입지특유의 우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외국기업으로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고도 현지에서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가 있어야 함은 물론, 국내보다 외국이 생산 입지상에서 우위에 있어야 하며 또한 기업 특유의 독점적 우위를 외국기업에게 라이선싱하는 것 보다 내부거래를 통해 이전하는 것이 유리해야 하는 내부화의 우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독점적 우위이론만으로는 수출이나 라이선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우위를 설명하기 어렵고, 내부화이론은 입지특유의 우위에 대한 설명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닝은 수출, 라이선싱, 해외직접투자를 동시에 포괄하는 국제생산이론을 모색하였는데, 이것이 독점적 우위이론, 내부화이론, 입지이론을 포괄하는 절충이론이다.⁹⁾

절충이론에 의하면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를 외부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내부화하는 것이 유리할 때 기업은 라이선싱방식을 버리고 수출이나 해외직접투자를 택할 것이고, 자본·기술·경영기법등을 해외로 이전하여 현지의 생산요소와 결합하는 것이 국내생산보다 유리할 때에 즉, 입지특유의 우위가 있을 때 기업은 수출 대신 해외직접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더닝이 이론을 전개하면서 열거한 우위요소는 다음과 같다.¹⁰⁾

9) John H. Dunning,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1981, Chapter 2.

10) *Ibid.*, pp.80-81.

<표 2-2> 기업특유의 우위 요소

1. 기업의 다국적성에 기인하지 않는 우위 즉, 기업의 규모 및 산업내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지위, 제품 및 공정의 다양화, 분업 및 전문화의 이점, 독점력, 자원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기업의 능력 등 특정기업이 동일 입지내의 다른 기업에 대하여 갖는 우위
 - ① 독점적 기술, 특허 및 기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상표
 - ② 생산, 관리, 조직, 마케팅, 연구개발능력 및 인적자본과 경험의 축적
 - ③ 노동, 천연자원, 자금, 정보등 투입요소에 대한 배타적 또는 유리한 접근
 - ④ 기업의규모 또는 기업의독점적영향력을 이용하여 유리한조건으로 투입요소를 획득할수 있는능력
 - ⑤ 제품시장에 대한 배타적 또는 유리한 접근
 - ⑥ 시장진입에 대한 통제등과 같은 정부의 조치
2. 기존기업의 자회사가 신규 진입기업에 대하여 갖는 우위
 - ① 저렴한 가격으로 모기업의 능력(경영관리, 연구개발, 마케팅등)을 이용
 - ② 생산, 구매, 마케팅, 자금조달등의 경우 공동공급의 경제성을 향유
3. 기업의 다국적성에 기인한 우위
 - ① 정부의 투입요소시장에 대한 보다 유리한 접근과 보다 나은 지식습득
 - ② 요소부존, 시장 및 정부의 개입 등에 있어서 국제적 차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
 - ③ 위협을 분산할 수 있는 능력

<표2-3> 절충이론에서 내부화의 우위요소

1. 시장에 대한 접근·협상·통제 등 외부시장거래에 수반되는 경비의 절감
2.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비의 절감
3. 외부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투입요소의 성질 및 가치에 대한 구매자의 의심제거
4. 외부시장에서 가격차별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기업내부로 흡수
5. 제품의 판매자로서 품질관리의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음
6. 외부제품의 이용과 기업간의 상호의존적 활동의 이점
7. 미래시장이 없을 경우 이를 기업내부로 흡수
8. 쿼터·관세·가격통제·조세차별등 정부의 각종 개입과 간섭에 대한 회피나 이용
9. 시장의 관료에 대한 통제기능
10. 경쟁적 기업전략으로서 가능한 경우 상호보조금 지급, 시장침투가격책정등의 기업활동 수행가능

<표2-4> 절충이론에서 입지특유의 우위요소

1. 투입요소와 시장의 공간적 분포
2. 노동·에너지·원자재·부품·반제품등 투입요소의 가격·품질 및 생산성
3. 수송비·통신시설 및 통신비용
4. 정부의 정책과 간섭
5. 수입에 대한 규제, 세율, 투자유인 및 투자환경, 정치적 안정성
6. 사회간접자본의 발달정도
7. 언어·문화·관습의 차이 등 자국과의 사회심리적인 거리감
8. 연구개발·생산·마케팅에 있어서의 경제성

나. 종합이론

던닝(Dunning, 1981)이나 킨들버거(Kindleberger, 1982)와 같은 학자들은 독자이론들의 종합화, 일반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주로 선진국형 이론의 틀 안에서 기존 이론들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개도국에서 강조하는 제반 변수, 특히 정치제도적 환경이론과 같은 일부의 시각을 간과하고 있다는 약점이 있다.¹¹⁾

개도국형과 선진국형의 제반 이론들을 그 접근방법의 공통 관점에서 관찰하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경영의 내부화(Internalization)와 현지화(Localization)의 2개 범주에 드는 비교우위론적 접근방법이 있는가 하면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과 정치적 요인(Government Policies)의 2개 범주는 경제를 전 단계별로 선진국과 개도국간 각기 독특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일그룹 내 동일변수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변수에 대한 역할의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앞의 2개 범주는 국가별 차이 없이 공통된 변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해외투자의 핵심변수 또는 필요변수라 할 수 있으며 후자의 2개 범주에서 강조하는 이론적 근거는 각각 이를 지원하는 보완변수 또는 충분변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해외투자의 핵심 또는 기본 요인은 현지화와 내부화로 요약되며, 현지화가 해외투자의 외적환경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면, 경영의 내부화는 내적능력을 강조하는 변수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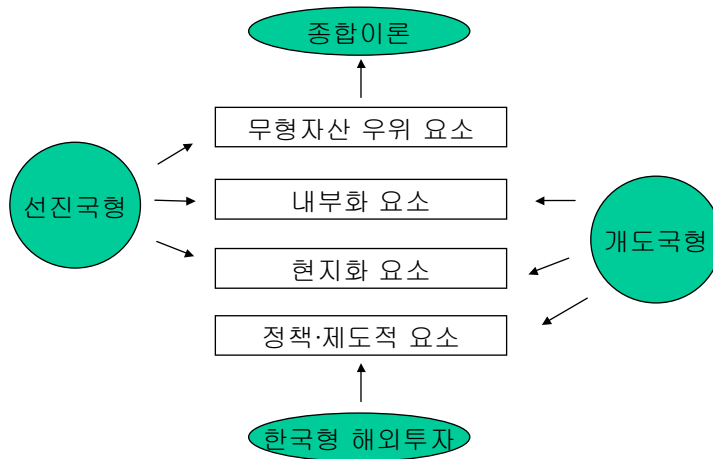
한편, 해외투자에 대한 부가지원적 접근방법인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과 정치적 요인(Government Policies)의 2개 범주는 해외투자 본국이 경제발전단계상 점유한 위치에 따라 그 역할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해외투자가 무형자산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정치적인 요인을 도외시하고 있고, 개도국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그 역이 사실이다. 이는 해외투자를 경제발전단계별 진화현상으로 파악하려는 그 시각에서 국가별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 무형자산과 정치적 변수가 해외투자에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나 모든 국가에 포괄적으로

11) 최용록, 「해외투자론」, 박영사. 2000. pp78~79.

적용되는 기본적인 의사결정변수는 아니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무형자산과 정치적 요인이 없이도 해외투자는 발생할 수 있으나, 선진국일수록 해외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우월적 지위를 무형자산에서 찾아내려 하고, 개도국은 이를 정치적·제도적 변수를 찾아보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따라서 해외투자의 핵심요소로 일반인들이 널리 인식하고 있는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과 정치적 요인(Government Policies)의 2개 범주는, 실은 경영의 내부화(Internalization)와 현지화(Localization)의 2개 범주에 의해 그 경제적 효율성 및 사업타당성이 검증된 해외투자를 강화·지원해 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여기서는 해외투자에 대한 제반 이론들을 경영의 내부화(Internalization)와 현지화(Localization)의 2개 범주에 의한 해외투자의 기본요소들과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과 정치적 요인(Government Policies)의 2개 범주에서 비롯된 해외투자의 경제발전 단계별 충분요소들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반 이론의 종합화는 다음과 같이 4개의 그룹별 특화 요인에 의하여 종합적인 동기 부여에 의해 해외투자가 추진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림2-1> 종합이론



본 연구는 이와같은 종합이론에 기초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영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기업들의 주먹구구식 관행을 대체하기 위한 이론적 사업타당성을 기본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3 절 선행연구의 평가와 연구의 기본 방향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확실한 하나의 가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모든 이론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두가지의 방향을 보여주는데, 미국과 같은 선진국으로의 상류형 해외직접투자(upward FDI)와 중국과 같은 개도국으로의 하류형 해외투자(downward FDI)가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의 기본 방향은 제2절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기초로 세계의 공장으로 각광받는 중국시장의 진출동기의 기본적 요소로 무형자산우위, 내부화우위, 현지화우위 및 제도적 요소의 4가지를 중심으로, 중국진출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기존의 선행연구가 크게 진출대상국가의 현지 경제특성을 강조하는 차별화이론과 모든 진출 대상국가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종합이론적 접근방법으로 대별되거나 중국시장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시장수요와 저렴한 공급가능성의 차원에서 볼때 복합적인 진출전략의 합리성을 종합이론적 시각에서 전개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대한 기본방향은 바로 이와같이 선행연구의 4가지 진출동기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환경분석과 한국경제의 역량분석을 결합하여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 3 장 중국 경제발전현황과 투자환경고찰

제 1 절 대중국 투자 환경분석

1. 경제적 환경

중국은 1949년 10월 1일에 건국된 국가로서 총 국토 면적은 959만 7천km²(한반도의 43.2배)에 달하고 있고, 인구수는 12억 8,303만 명(2000년 6월)이며, 한족(91.9%)과 55개 소수 민족(전인구의 8.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 언어로는 중국어이지만 방언 및 소수 민족 언어가 존재하여 지역별로 의사소통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수도는 북경(Beijing)이며 수도에 거주하는 인구는 1,257만 명(99년)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정부 형태는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정부인데 정치 지도 체제는 크게 "당"과 "정"으로 나누어지며, 당은 "중국 공산당"이, 정은 "국무원"이 대표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입법기구로 헌법상 국가최고 의결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있으나 실질적인 권력은 당에 종속되어 있는 상징적인 존재로 각 성, 직할시, 자치구, 인민해방군 대표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 매년 1회 대표 전원이 북경에서 전체회의를 개최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는 형식상 8개의 당이 존재하나 실제로 이는 유명무실하고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이다.

<표3-1> 중국의 일반적 개황

구 분	내 용
면 적	959만 7천km ² (한반도의 43.2배)
수 도	북경(Beijing)
주요도시	베이징(1,257만,99년), 상하이(1,474만,99년)
인 구	12억 8,303만 명(2000년 6월)
인 종	한족(91.9%)과 55개 소수민족(전인구의 8.1%)으로 구성
언 어	중국어가 통용, 방언 및 소수민족언어 존재
종 교	무신 교(소수의 도교, 불교, 이슬람교, 개신교 존재)
건 국 일	1949년 10월 1일
정치지도체제	당은 "중국 공산당"이, 정은 "국무원"이 대표
입 법 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정 당	공산당 과 표면적인 수 개의 정당이 병존
정부성향	인민 민주주의 국가

중국은 78년 개혁 개방 이후 연평균 10%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잠재 시장으로 <표3-2>에 나타난 바와같이 2003년 상반기 경제규모(GDP)는 50,053억 위엔을 기록했다. 대외 무역액 또한 연평균 20% 이상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3년 상반기의 경우 3,762억 달러가 되었다.

이러한 고속 경제 성장에 따라 시장 규모도 확대되어 수입 시장이 2005년 3,5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구매력 기준 GDP가 9조 4천억 달러에 달해 미국의 9조 3천 3백억 달러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3-2> 중국의 경제 현황

구 분	단 위	2002년	2003년(상반기)	
GDP	위엔	102,398억	50,053억	
실질경제성장률	%	8.0%	8.2%	
1인당 GDP	위엔	997		
실업률	%	4%		
물가상승률	전년 대비	-0.8%	0.7%	
환율	1US\$당	8.2867	8.2781	
외환보유고	US\$(증가율)	2,864억	3,465억	
교역규모	수출	US\$(증가율)	3,256억(22.3%)	1,903(33.9%)
	수입	US\$(증가율)	2,952억(21.2%)	1,859(44.5%)
산업구조	1차 산업		4,625.6억	4,754억(2.7%)
	2차 산업		2조5,459.2억	2조8,800억(11.6%)
	3차 산업		1조5,806.042억	1조6,499억(4.2%)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각 년도.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다양한 지표들에 의해 그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는 바, <표3-3>에 나타난 경제인프라 확충 계획과 국제수지의 누적흑자는 중국경제의 새로운 도전이며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중국경제의 성장과정과 발전전망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한국경제의 도전과 기회를 찾아보도록 한다.

〈표3-3〉 최근 5년간(1997~2002) 중국의 경제적 성과

주요 내용	1997		2002	비고
GDP 규모	7조 4,000억 원*	→	10조 2,000억 원	▪ 연평균 성장률: 7.7%
국가 재정수입	8,651억 원	→	1조 8,914억 원	▪ 연평균 증가액: 2,053억 원
무역 규모	3,252억 달러	→	6,208억 달러	▪ 세계 10위 → 5위로 성장
수출	1,828억 달러	→	3,256억 달러	
FDI 규모	2, 261억 달러(누계 기준)			
외환보유액	1,399억 달러	→	2,864억 달러	▪ 증가액: 1,465억 달러 증가
R&D 투자 규모	509억 원	→	1,161억 원	
GDP대비 비중	0.64%	→	1.13%	
전사회고정자산투자	총 17조 2,000억 원(누계 기준) ▪ 장기건설국채 발행 규모: 총 6,600억 원 (※ 서부대개발 투자규모(2000~2002): 6,000여억 원)			
수리시설 건설	총 3,562억 원 (※ 1950~1997년까지 중국 누계투자와 동일한 규모로, 간국 이래 최대 규모)			
하천제방공사	총 35,000km(착공 기준) ▪ 장강 간선제방 공사: 3,500여km(완성) ▪ 황하 제방 보완공사: 1,000km 정도(완성)			
수송인프라 건설				
도로건설	총 1조 2,343억 원(※ 1950~1997년까지 중국 전체 도로건설 비용의 1.7배 규모)			
전체 도로	123만 km	→	176만 km	▪ 증가 규모: 53만 km
고속 도로	4,771 km	→	25,200 km	▪ 증가 규모: 20,429 km ▪ 세계 39위 → 2위로 급성장
철도운행 규모	65,969 km	→	71,500 km	▪ 증가 규모: 5,531 km
공항 건설	총 50개(신설·개축·확충 포함)			
항만 건설	총 화물취급량: 1억 4,400만 톤(신설항만 기준)			
정보통신인프라 건설				
장거리광케이블	15만 km	→	47만 km	
일반 이동전화 사용자수	8,354만 호	→	4억 2,100만 호	▪ 세계 1위로 급성장
에너지 설비 건설				
발전기설비용량	2억 5,400만 kW	→	3억 5,300만 kW	
환경보호 및 생태계건설	총 5,800억 원(※ 1950~1997년까지 투입총액의 1.7배 규모)			
조림	▪ 사업 면적: 4억 1,800만 무**			
임야조성	▪ 사업 면적: 4억 7,300만 무			
환경림 조성	▪ 사업 면적: 5,737만 무			
사막화정비사업	▪ 사업 면적: 8,550만 무			

주: 주룽지 총리의 정부업무보고(2003.3.5) 내용을 발췌·요약정리한 것임

* 1원은 중국화폐의 기본 단위로서 한화 약145원에 해당함 ** 1무는 대체로 우리나라 200평을 표시함

자료 : 중국경제현안 브리핑, KIEP 2003.에서 재인용.

가. 경제 발전 전략

중국은 80년대에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점 → 선 → 면으로 이어지는 개방전략을 취해왔으며, 90년대 들어서는 "전 방위 다원화" 전략을 취했다. 특히 9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는(96-2000) 지역을 7개로 나누어(동북지구, 환발해 지구, 장강삼각주 및 연해 경제구, 중부지구, 동남연해지구, 서남지구, 서북지구) 경제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7대 경제구 개발계획은 제8기 전인대 4차 전체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성자치구 등 행정구역에 의한 경계선을 타파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을 7대 경제구로 나누어 각 지역에 부합하는 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결정하였으며 산업의 획일화와 중복투자는 방지하고 동부지역과 중서부지역의 우위성을 감안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999년 11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00년 주요사업으로 "서부대개발"계획 추진을 공식 확정하고 1월 하순 국무원 서부지역 개발팀을 주체로 하여 성시대표를 소집, 지역개발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했다.

정부당국의 "서부대개발" 계획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한 바 있는 '90년대에는 동부연해 지역의 유리한 요소를 활용하여 우선 개발하고 2000년 이후 동부연해 지역의 발전을 중서부 지역의 개발에 활용, 공동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20여년의 대외개방을 거쳐 동남연해 지역경제가 상당한 발전을 하고, 서부도 기본적으로 일정한 기초적인 토대가 형성되었다고 전제할 때, 서부개발은 중국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 지역경제 발전, 내수부양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민족단결, 사회 안정이라는 경제이면의 효과도 수반하기 때문에 정부가 중장기 발전계획의 핵심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부대개발"의 기본방침은 "우선 인프라구축을 강화한 다음 산업구조를 조정하여 과학기술과 교육을 발전시키고 인력을 배양, 대외개방을 확대 한다"는 것이다.

서부는 총 면적이 540만km²로 전국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2.85억으로 전국의 23%를 점유하고 있다. 탐사된 매장 자원만 해도 전국의 68%에 이르고 있으며 이밖에도 에너지, 관광자원 등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서부개발의 추동력이 될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내는 홍보자료에는 '서부지역의 풍부한 자원 (양모, 과일, 중약재, 석재 등)을 이용하여 현지가공을 진행할 수 있고 군사공업기지, 중공업도시(시안, 란저우 등)의 과학기술역량과 공업기초를 이용,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가능하며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관광업 등 서비스업 발전이 유망하고, 신장(新疆)의 변경무역을 통해 현지 가공품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중국은 2003년 3월 5일에 개막된 제10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경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추구하기로 하였다. 그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개방형 경제 발전 가속화와 대외경제의 지속발전을 추구 한다는 과제가 제시되었다. 중국은 제10차 5개년 계획기간 중 경제개방을 가속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여 2005년 총 무역액 6,8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수출입이 대체적인 균형에 이를 것이다. 또, 수출상품 중 전기전자 제품의 비중은 50%로, 첨단기술 제품의 비중은 약 20%정도로 상승할 것이며, 매년 400억불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가급적 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둘째로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한다는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경제개방 가속과 지속적인 경제발전 추구를 위해서는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대외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중국은 "품질 개량", "시장 다원화" 및 "과학과 기술에 의한 무역촉진"을 기본전략으로, 무역관리체제, 수출상품, 무역방식, 교역시장에 대한 조정과 부가가치 제고의 방법을 통해, 양적인 발전에서 질적인 발전위주로 대외교역을 발전시킬 것이다.

셋째로 새로운 대외무역관리체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새로운 대외무역관리체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과 규정을 기초로, 개혁을 원동력으로 삼고, 발전을 목표로 하여, 대외적인 조약을 고려하면서, WTO 가입이후의 과도기를 충분히 이용하여, 국제규범과 국제정세에 맞는 대외무역관리체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넷째로 해외진출전략의 개방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자본과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끌어들이는 것을 위주로 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투자 유망 지역에는 적극적인 투자도 장려하고, 국제경쟁과 합작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중국의 해외 진출 전략도 본격화하여, 양 정책간의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로 대외교역 발전 촉진을 위한 기본적 보장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중국은 대외교역 발전 촉진을 위해, 수출입시 세금 환급규정을 개혁하고, 안정된 세금환급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아울러 수출신용보험과 수출신용대출을 위주로 하는 수출 금융지원체계도 완비할 예정이다.

여섯째로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전국 세관을 on-line화 하여, 수출입 관련 정보와 통관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추진 중인 "금관공정"을 완성하여 건전한 대외무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외무역의 관리·경영 정보체계를 초보적으로 on-line화하며, 전자상거래와 전자메일 등에 있어 중요한 발전을 이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협력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해 가고자 한다. 일정한 지역 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적극 참여 중국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10차 5개년 계획기간 중 7%대의 경제발전을 통해 2005년까지 국내총생산규모를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일인당 소득수준도 1,300달러 대로 높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나. 경제 전망 및 관련 정책방향

1)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효과제고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의 위험을 고려하며 안정적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과 농촌 교육, 인프라 확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자금의 지출 관련 혜택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가속화하여 매년 일정규모의 사회보장채권을 향후 10년간 발행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성급 지방정부의 농촌 인프라와 교육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중서부 및 지방의 도로관련 투자를 늘릴 예정. 교육관련 투자지출을 증가하여 농촌지역의 9년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향후 무료 교육으로 확대하는 한편, 농촌의 생태환경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서부지역의 삼림 녹화 사업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2) 적극적 화폐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노력

중국 정부 재정의 한계와 적자재정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화폐정책을 동시에 취하여 경기부양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기술적인 화폐정책에는 한계가 있어 금융 시스템의 개혁 등 금융 구조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화폐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대출 영역의 확대 등 화폐 유동성 확대와 중소 은행의 업무조정과 활성화 등 자본시장 재편을 통한 화폐정책을 통하여 재정정책을 보완할 것이다.

3) 과잉공급과 통화긴축 완화노력

통화긴축은 현재 중국이 당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인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낙후된 생산설비를 폐쇄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며 금융권의 개혁을 통한 화폐정책 운용을 통하여 통화긴축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4) 실업유형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일자리 증대

구조적, 마찰적, 자발적 실업 등 실업의 유형을 분석하여 각 실업별로 적절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국유기업 정리해고자 2,500만 명에 이룸) 세부적으로 사회보장 제도의 완비, 실업인구의 재교육, 비효율적인 실업혜택 감소를 추진하며 경기적 실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하여 실업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5) WTO가입 이후 국내시장 및 산업구조 조정가속

WTO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를 가속화하고 외국기업에 제공되었던 세수우대혜택 등 투자관련 인센티브 등 내국민 대우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점차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사회 문화적 환경

중국은 남쪽으로는 홍콩·베트남·라오스·미얀마, 남서쪽으로는 인도·부탄·네팔·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북쪽으로는 타지키스탄·키르기스탄·카자흐스탄 및 러시아 연방, 몽골과 접해있으며 東北 남쪽으로는 북한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쪽과 동남쪽은 한국·일본·필리핀·브루나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해 있다.

중국의 기후로는 국토의 대부분이 온대몬순권이나 지역이 광활하여 기후분포가 다양하다. 동북 지방은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반면, 남부지방의 경우 여름이 길고 겨울이 짧으며 동부 연해지방은 사계절이 분명하고 온난 다습한 편이다. 남부의 해남성은 연평균 기온 24도의 아열대 기후인 반면, 북부의 헤이룽장 성은 연평균 기온 4도의 냉대 기후 권에 속하는 등 남북으로 큰 기후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서쪽의 칭해, 티베트, 신강지역과 내몽고 지역은 고산 기후 및 건조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종교로는 불교, 기독교, 도교, 회교가 주된 종교로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6조에서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장기간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종교가 사회 및 경제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표3-4> 중국의 사회 문화적 지표

구 분	내 용
지리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쪽으로는 홍콩·베트남·라오스·미얀마, 남서쪽으로는 인도·부탄·네팔·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과 경계를 이룸 - 북쪽으로는 타지키스탄·키르기스탄·카자흐스탄 및 러시아 연방, 몽골과 접해있으며 동북 남쪽으로는 북한과 경계를 이루고 있음 - 동쪽과 동남쪽은 한국·일본·필리핀·브루나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해 있음
인 구	12억 6,583만 명(2000년)
민족(인종)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전인구의 8%)으로 구성
종 교	불교, 기독교, 도교, 회교(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6조에서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언 어	중국어가 통용, 방언 및 소수민족언어 존재
기 후	국토의 대부분이 온대몬순권(지역별 기후분포가 다양)

자료 : KOTRA. 내부자료 2002.

또한 중국 국민의 국민성은 전반적으로 낙천적이며 매사에 서두르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관료제는 수평, 수직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짜여 있어서 각종 의사 결정은 수평, 수직적 단위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의 지배보다는 인의 지배가 강하다. 따라서 어떠한 규정보다는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환경을 반영하여 지역적 광활함과 거대한 소득 격차, 체제 전환 과정 등에 기인하는 다양성으로 일괄적인 시장 특성을 언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나 중국 시장이 가지는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진다.

첫째, 중국시장은 시장경제와 관료적 통제가 병존하는 혼합 시장이며, 시장 구조가 공급자 시장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급격히 전환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개혁·개방이후 중국 경제의 재화 공급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전통적인 재화

의 공급제약이 크게 완화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넓어져 일부 고급품, 하이테크 소비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재에서는 기업 간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둘째, 중국시장은 점차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중·고급품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1992년 이후 외국 기업의 품질 좋고 다양한 상품이 백화점에 진열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소비시장의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시장으로 변모, 중국 시장을 단순히 국내 재고품을 처리하는 시장으로 간주할 경우 중국 도시민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중국 시장 진출 시 품질 좋은 고급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중국시장은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은 시장이다. 특히 내구 소비재의 경우, 일반 일용 잡화와는 달리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 시기별로 수요 판매량의 기복이 심하다. 90년대 들어 개인기업과 외자기업의 급증으로 인해 전화기, 팩스,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최근 주택상품화정책에 부응하여 대형가전, 실내장식품, 주방용 기기, 가구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넷째, 중국시장은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미흡한 복제품 시장이다. 이는 대부분 후발 개도국의 특성으로서 특히 손재주가 좋은 중국 사람들은 본 제품과 거의 동질의 제품을 복제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이것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중국인과 중국기업들의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3. 중국의 외자유치정책

중국은 1992년 제14기 공산당대회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채택한 후 해외의 선진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관련법규 및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모든 분야로 개방을 점진

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와 투자보호 협정 및 조세협약을 체결하여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를 예방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현재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외국투자자들이 550억 달러를 중국에 투자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 해외투자 유치정책

중국은 104개국과 쌍무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외국인의 투자자본, 사업경영, 이윤의 해외송금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상 혹은 사회의 공익상 국유화나 징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을 한 후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국의 법률에 따라 인민법원에 판결을 의뢰할 수 있으며, 국유화나 징발로 인한 보상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기관에 분쟁 해결의 중재요청도 가능하다. 또한 중국정부는 해외투자 유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외국인의 투자가 중국의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과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1995년 6월에 「외국인투자 방향지도 규정」(2002년 2월 개정)과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2002년 2월 개정)을 제정 공포하였다. 외국인 투자 항목은 장려, 허용, 제한, 금지로 구분되며 장려항목의 시설재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한다.

《 장려산업 》

- ① 농업신기술 · 농업종합개발 · 에너지 · 교통 · 중요 원재료 관련산업
- ② 상품의 성능, 기술력 및 경제효율을 향상시키고 국내생산이 부족한 신설비 · 신재료에 관련된 산업
- ③ 시장수요에 부응, 상품의 질 향상, 신흥 시장 개발 혹은 상품의 국제 경쟁력 증가에 관련된 산업
- ④ 에너지 · 원자재를 절약하며, 자원과 재생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신기술 · 신장비 관련 산업
- ⑤ 중서부지역의 인력과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고 국가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산업
- ⑥ 기타 국가의 법률과 행정규정으로 정한 것

《 제한산업 》

- ① 기술 수준이 낙후된 것
- ② 자원절약과 생태환경 개선에 불리한 것
- ③ 국가가 법률 등으로 보호하는 광물을 탐사, 채굴하는 것
- ④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산업에 속하는 것
- ⑤ 기타 국가의 법률과 행정규정으로 정한 것

《 금지산업 》

- ①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의 공공이익을 해치는 것
- ② 환경을 오염하고, 자연 자원을 파괴하고 인체건강을 해치는 것
- ③ 넓은 경지를 점유하고 토지자원 보호와 개발에 해로운 것
- ④ 군사시설의 안전과 효과적인 사용에 방해가 되는 것
- ⑤ 중국 특유의 공예와 기술을 이용하는 것
- ⑥ 기타 국가의 법률과 행정규정으로 정한 것

나. 지역정책

중국의 개방은 동부연해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외국인의 투자도 거의 모두 동부에서 이루어졌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 정부는 개방 초기에 동부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경제특구 등을 지정하여 그 지역 내에 설립된 기업에 대하여 조세경감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1979년에 경제특구(심천, 주해, 산둥, 하문, 해남)를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방구, 경제기술개발구, 하이테크산업개발구 등을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동부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부지역이 먼저 경제발전을 하고 그 성장의 동력을 타지역으로 확대시키는 전략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결과 상대적으로 서부지역은 낙후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부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부지역에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즉 서부지역투자를 우선 지원하고, 이 지역의 통신·수송·수리관제 등 기반시설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다. 수출 및 조세관련 인센티브

중국은 수출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외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확보된 외화자본을 국가경제 발전의 밑거름으로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출지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외자기업이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부자재, 원판, 부품, 포장재료관세 증치세 면제해 주며, ② 외국인투자로 운영되는 수출기업은 기업소득세감면, 면제기간 만료 후 당해 년 수출상품 가치가 당해연도 기업 총산품가치의 70/100 이상인 경우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해 기업소득세를 반감하여 주고 있다. 단,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 및 기타 15/10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 후 수출기업으로 위의 상술한 조건에 부합되면 10/10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③ 수출기업에 재투자하는 것은 그 재투자부문에서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 세액을 전부 환급해 주고 있으며, ④ 생산제품 전체를 수출하는 허가영역의 산업은 장려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및 외국인 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 등을 근간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지역, 투자업종 등에 따라 우대 내용을 달리 하여 각종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 등의 혜택없이 기업소득세(법인세)를 낸다면 기업소득세 30%, 지방소득세 3%로 33%의 세금을 내야 되지만, 생산형 기업, 수출기업, 경제개발구내 기업, 첨단기술 기업, 중국 산업정책에 부합되는 항목에 종사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표3-5> 중국 각 개발구역 법인세율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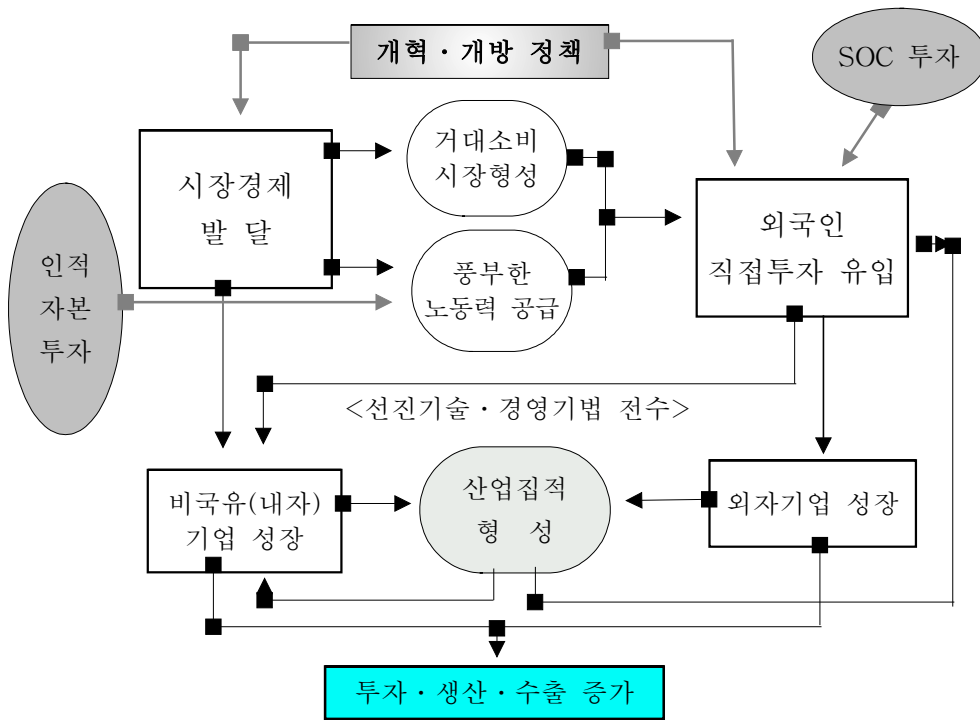
세율 감면조건	일반지역	외자유치지역 (경제특구, 보세구, 개발구)
일반 적용 세율	30 %	15 %
생산액 70% 수출시 당년혜택	15 %	10 %
기술 및 자본집약형 기업	30 %	15 %

4. 중국경제의 향후전망

중국 경제의 고성장을 가능하게 한 성장요인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방대한 소비시장과 저임 노동력의 존재 이외에도 ①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운영, ② 양질의 인적자원에 의한 선진기술의 빠른 습득력, ③국내기업의 높은 시장경제 적응 및 급성장에 따른 산업집적(Industrial Cluster)의 형성 등에도 크게 기인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은 선순환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12) 중국의 주요 개발구 투자환경과 진출사례, KOTRA, 2002

<그림3-1> 중국 성장 요인의 순환



특히 WTO 가입으로 경제개방이 확대되면서 구조개혁이 가속화되고 외국인직접 투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성장의 동력은 상당기간 유지될 전망이다.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은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점차 호전되고 있어 심각한 성장제약 요인으로 현재화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토지의 사유 재산권을 인정할 경우 현재 20조위안에 달하는 국유기업의 자산가치를 활용할 수 있어 부실채권(약 4조위안) 문제의 해결이 어렵지 않고, 중국의 GDP대비 재정적자 및 부채비율은 동남아국가보다 낮은 등 충분히 통제가능한 수준이며, 다수의 실업자 및 농촌의 유희인력 역시 저렴한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으로 볼 수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향후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지속되고 국유기업 개혁등 경제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되며 디플레이션이 해소됨으로써 내수중심의 자율성장 기반이 정착된다는 전제하에서 중국경제가 2010년까지 7% 이상, 2011년 이후 6% 전후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대 전반까지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SOC 투자, 부동산 투자, 외국인직접투자 등을 중심으로 투자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소비는 농촌 도시화 및 비농업소득 증대등에 힘입어 휴대전화, 컴퓨터,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TV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는 한편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과 더불어 북경올림픽, 상해세계박람회 등을 계기로 서비스산업이 발달하는 등 산업구조도 고도화됨으로써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현재 잠재성장률은 9~10%로 평가되고 있는데 잉여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잉여노동력의 활용이 지속될 경우 실제성장률이 이에 근접할 것이라는 평가된다. 2010년까지의 중국경제 성장률에 대해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8% 내외, 일본정부(내각부)는 8~9%, 일본 UFJ총합연구소는 7.3%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다만 2000년대 후반부터는 SOC와 부동산투자는 재정건전화 압력으로 인해, FDI

는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일단락됨으로 인해 성장세가 각각 둔화되고, 수출도 선진국과의 통상마찰과 위안화의 절상압력 등이 현재화되어 2010년 이후 투자-수출의 선순환 관계가 약화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경제개혁이 부진하여 ①유기업 개혁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②재정의 취약성, ③실업 및 농촌소득 문제, ④디플레이션 등의 리스크 요인들이 현재화할 경우에는 성장이 좀더 둔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표3-6> 기관별 중국경제 장기전망

(GDP성장률, %)

기관명		2001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20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낙관적 시나리오	8.1	7.8	7.1	6.2
	비관적 시나리오	6.9	6.4	5.6	4.0
일본 내각부	낙관적 시나리오	8.2	9.4	-	-
	비관적 시나리오	6.2	4.5	-	-
UFJ총합연구소	낙관적 시나리오	7.4	7.2	6.7	-
Global Insight사	낙관적 시나리오	7.4	6.2 (2005~25)		

다만 이 경우에도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UFJ총합연구소는 낙관적 시나리오의 확률을 65%, 비관적 시나리오의 확률을 25%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정부도 지금까지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7%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여 GDP를 현재의 4배, 1인당 GDP를 3,000달러로 끌어올린다는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2001~2010년 중에는 높은 투자율 및 노동공급의 증가세 지속, 과학기술 발전, 시장경제화 및 대외개방 확대에 의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공급

능력이 크게 확충되는 한편 수요면에서도 저소득층의 소비수요 증가, 도시화진전에 따른 소비수요 증가 이외에도 인프라 투자, 전통적 산업의 개조투자, 하이테크 산업의 투자 등 내수 증가세가 확대됨으로써 7%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2020년 중에도 이전 10년간의 경제성장 요인이 지속되겠으나 노동공급 증가율 둔화, 고령인구 급증, 저축률 및 투자율 하락 등의 제약요인으로 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3-7〉 중국정부의 향후 50년 성장전망

기 간	성장률 전망	
2001~2010년	6.5~7.5%	20년 평균 7.2%
2011~2020년	6.5~7.2%	
2021~2030년	5.4%	30년 평균 4.4%
2031~2040년	4.5%	
2041~2050년	3.4%	

제 2 절 중국 진출의 타당성 검토

1. 중국진출의 기회요인

가. 저비용생산기지

중국은 성장시장으로서 뿐만아니라 저렴한 임금등 비용요인 때문에 수출생산기지로서도 중요하다. 중국경제의 주요 특징으로 자주 거론되는 저임금과 인력의 질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기 위해 한·중 양국간 현지화 및 달러화 표시제조업분야 평균임금을 비교분석하여 <표3-8>에 정리하였다. <표3-8>에 의하면 우선 우리나라의 제조업 평균임금수준이 절대적인 수준에 있어 중국에 비해 약 20배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결과는 중국전체 임금수준과 비교해

서 구한 것이었지만, 이를 해안지역에만 국한해서 비교할 경우에도¹³⁾ 양국간 임금 격차는 13.9배로¹⁴⁾ 중국의 임금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양국간 임금격차의 시계열 변동의 추이를 임금상승률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그동안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가 최근 들어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임금격차 축소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IMF관리체제를 거치면서 임금수준이 달러기준으로나 원화기준으로 모두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축소된 데 기인한 것일 뿐 달러기준 제조업임금 수준의 격차는 2001년말 현재 해안지역 대비 9.4배에 이르고 있다.

13) 베이징, 톈진, 랴오닝, 상하이, 장쑤, 저장, 푸젠, 산둥, 광둥, 하이난 등 10개지역 평균과 내륙지역과의 평균격차인 1.43을 적용.

14) 실제 단순인력기준으로 임금이 선전은 1/8에 해당하고 있으나, 생산성은 거의 한국수준과 맞먹는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그러나 선전의 이웃인 동관으로 가면 임금은 한국의 1/13 수준으로 낮아짐.

<표3-8> 제조업 한-중 임금 변동추이 비교

년도	한국			중국			임금비율	
	제조업 달러	증가율		제조업 달러	증가율		전국 대비	해안 대비
		달러기준	원화기준		달러기준	RMB기준		
1985	310	33	9.4	6.6
1986	334	7.7	9.0	32	-1.9	15.4	10.4	7.2
1987	399	19.6	11.6	33	2.7	10.7	12.1	8.4
1988	539	34.9	19.8	40	20.5	20.5	13.5	9.4
1989	734	36.3	25.2	44	11.0	12.3	16.6	11.6
1990	836	13.9	20.1	36	-18.5	3.6	23.1	16.2
1991	943	12.8	16.9	36	-0.8	10.4	26.3	18.4
1992	1,024	8.6	15.6	40	11.1	15.1	25.7	18.0
1993	1,103	7.8	10.8	48	21.6	27.1	22.8	15.9
1994	1,272	15.3	15.4	41	-14.5	27.9	30.7	21.5
1995	1,457	14.6	9.9	52	24.6	20.7	28.3	19.8
1996	1,568	7.6	12.3	57	9.6	9.2	27.7	19.4
1997	1,395	-11.0	5.1	60	5.5	5.2	23.4	16.4
1998	919	-34.1	-3.1	71	19.2	19.1	12.9	9.0
1999	1,240	34.9	14.7	78	10.3	10.3	15.8	11.1
2000	1,416	14.2	8.5	88	12.3	12.3	16.1	11.2
2001	1,319	-6.9	6.3	98	11.7	11.7	13.4	9.4
86~01평균	1,031	11.0	12.4	53	7.8	14.5	19.9	13.9
86~91평균	631	20.9	17.1	37	2.2	12.1	17.0	11.9
92~96평균	1,285	10.8	12.8	48	10.5	20.0	27.0	18.9
97~01평균	1,258	-0.6	6.3	79	11.8	11.7	16.3	11.4

자료 : 중국통계연감 2002년도판 및 한국은행 통계자료 참조.

중국경제의 노동력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은 노동의 질적인 개선을 지적할 수 있다. 이의 대표적 지표인 중국의 국내 대학교육의 확충과 유학생의 국내회귀 추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1997년 대학신입생수가 100만을 넘어서서 중국도 이미 대학생 증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 및 대학원 입학

정원의 확충과 함께 유학생의 회귀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내 노동력의 질적인 수준이 최근 들어 크게 개선되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예컨대 <표 3-9>에서 1986년도의 대학 입학정원은 57만 2천명이었으나 이후 10여년이 지난 1997년에 100만명을 넘어선 이래 2001년 268만 3천명에 달하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학원 입학정원도 1986년에는 11만명에 불과하였던 것이 2001년 현재 39만 3천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 만큼 고급인력이 중국내에서 대대적으로 양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대학교육의 정상화가 1995년 이후 현저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적어도 2000년 이후 최근 2~3년내에 졸업하는 1,000만명 정도는 매우 유능한 인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중국학생들의 해외유학 붐은 시작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통계는 유학생의 귀국율인데, 1986~2001년 간 평균 귀국율은 40.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내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IT산업에서 이들 고급인력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표3-9>에서 보듯이 현재 중국에서는 인구 만명당 대학 재학생수가 1985년의 16.1명에서 2001년의 56.3명으로 세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관련 통계지표상의 질적·양적 변화를 통해서 단순 노동력뿐만 아니라 관리자층 등 고급영역에서도 우수인력의 공급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될 수 있다.

<표3-9> 중국의 대학생 추이

연도	만명당 대학생수(명)	신입생수 및 재학생(만명)			유 학 생(명)		
		대학입학정원	대 학	대학원	출 국	귀 국	귀국율(%)
1978	8.9	40.2	85.6	1.1	860	248	28.8
1980	11.6	28.1	114.4	2.2	2,124	162	7.6
1985	16.1	61.9	170.3	8.7	4,888	1,424	29.1
1986	..	57.2	188.0	11.0	4,676	1,388	29.7
1987	..	61.7	195.9	12.0	4,703	1,605	34.1
1988	..	67.0	206.6	11.3	3,786	3,000	79.2
1989	..	59.7	208.2	10.1	3,329	1,753	52.7
1990	18.0	60.9	206.3	9.3	2,950	1,593	54.0
1991	17.6	62.0	204.4	8.8	2,900	2,069	71.3
1992	18.6	75.4	218.4	9.4	6,540	3,611	55.2
1993	21.4	92.4	253.6	10.7	10,742	5,128	47.7
1994	23.4	90.0	279.9	12.8	19,071	4,230	22.2
1995	24.0	92.6	290.6	14.5	20,381	5,750	28.2
1996	24.7	96.6	302.1	16.3	20,905	6,570	31.4
1997	25.7	100.0	317.4	17.6	22,410	7,130	31.8
1998	27.3	108.4	340.9	19.9	17,622	7,379	41.9
1999	32.8	159.7	413.4	23.4	23,749	7,748	32.6
2000	43.9	220.6	556.1	30.1	38,989	9,121	23.4
2001	56.3	268.3	719.1	39.3	83,973	12,243	14.6
소계	..	1,802.7	5,271.2	268.7	294,598	82,152	27.9
86~01평균	..	104.5	306.3	16.0	17,920	5,020	40.6
86~91평균	17.8	61.4	201.6	10.4	3,724	1,901	53.5
92~96평균	22.4	89.4	268.9	12.8	15,528	5,058	36.9
97~01평균	37.2	171.4	469.4	26.1	37,349	8,724	28.9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년호를 참조하여 계산.

나. 세계의 시장 및 공장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대로 중국의 수입시장은 크게 확대되어 1995년 1,321억달러로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수입시장은 약3.4%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2,436억달러로 약4.9%정도로 확대되었다. 여기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중국의 연평균증가율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의 7.4%를 상회하는 10.7%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중국시장의 급속한 성장은 한국기업들에게 새로운 판매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993년 이후 중국은 외국자본 최대 유치개발도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3년 7월말 현재 중국이 비준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44만 6,441개 8,872억3,100만 달러(협약기준)이며, 이들 외자계 기업이 중국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초 현재 약54%이다.

<표3-10> 중국수입시장의 크기 변화

(단위 : 억달러, %)

국가/내역	수입시장규모		연평균증가율 (1995~2001)	대세계비중	비고
	1995	2001			
미국	7,709	11,805	7.4	23.5	
EU	7,132	9,140	4.2	18.2	
일본	3,359	3,501	0.7	7.0	
중국	1,321	2,436	10.7	4.9	
H.K	1,961	2,023	0.5	4.0	
계	38,842	50,173	4.4	100.0	

자료 : WTO, KOTIS, 신현수, 「최근 수출호조는 일시적인가」 산업연구원, 2003 재인용.

포춘지선정 세계500대 다국적기업 가운데 400여개 기업이 중국에 진출·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산업제품 가운데 CD, DVD등의 생산량은 전세계 생산량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위상변화는 대외무역 규모의 확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997년 한해동안 1,827억 달러를 수출하고, 1,423.6억달러를 수입 총 3,250.6억 달러로 세계 제 10대 무역국이었으나, 2002년말에는 총수출은 3,256억달러 총수입은 2,952억달러로 대외무역규모가 6,208억달러가 되어 세계5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중국이 해외 수출을 위한 우회생산기지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중국이 개도국으로 갖는 위상을 한국기업이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거대한 인프라 개발 수요와 풍부한 자원

중국은 960만km²나되는 광대한 국토의 나라이다. 따라서 수송·통신등의 발달이 지역간 경제거래의 확대와 경제성장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세계무역박람회라는 대형 행사 개최, 서부대개발의 추진에 따른 사회간접시설 확충등의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소요비용이 2,800억위안(338억달러)에서 최고 3,000억 위안(36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중 베이징시의 인프라 확충에 1,800억 위안(217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부대개발은 ①도로를 중심으로 철도·공항·천연가스수송망·전력·통신·수리시설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노동력이 저렴한 것 이외에도 세계 제3위의 면적을 지닌 대국으로써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유의 경우 세계 총산유량의 4.4%가 중국내에서 생산되며 세계 총원유소비의 6.8%가 중국에서 소비되어 원유 자급률이 64%에 달하며 원면, 밀, 옥수수, 쌀 등 주요 작물(원모 제외)의 경우 세계 1~3 순위의 생산대국이다.

<표3-11> 주요 자원의 총수급량 대비 중국의 수급 비중 (2001년)

(%)

	수요비중	공급비중		수요비중	공급비중
원 유	6.8	4.4	옥수수	19.0	19.1 (2)
원 면	27.3	25.0 (1)	쌀	33.3	30.4 (2)
원 모	27.6	11.2 (3)	rapeseed (평지씨) oil	32.9	33.0 (1)
밀	18.8	16.2 (1)			

주 : ()내는 생산량의 세계 순위

자료 :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conomist Intelligence Unit.

한편 오랜 역사적 유물과 수려한 풍광 등 관광자원도 풍부하여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관광 증가로 관광산업이 크게 발달하였으며 앞으로도 2008년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2001년 기준 관광산업의 고정자산(누계기준)은 938억달러(연중 고정자산투자의 21.1%)이고, 600만명을 고용(총취업인원의 0.8%)했으며, 2000년 관광수입은 450억달러(내국인 310억달러, 외국인 140억달러)에 달해 GDP에서 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림수산자원, 수자원, 지하자원이 풍부하다는 매력요인이 있다. 이같은 풍부한 농림수산자원, 지하자원은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결합되어 중국내 자원개발·가공 생산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주고 있다. 또한 인프라개발 수요와 더불어 관광 및 자원개발의 잠재적 사업타당성은 중국진출의 좋은 기회로 부각하고 있다

<표3-12> 확인매장량으로 본 중국의 지하 광물자원

세계 매장량에서 점하는순위	제1위	제2위	제3위	제4위	제5~6위	제7~10위	비고
주요 광물	비스무트 안티몬 티타늄 회토류 마그네슘 비소, 석면 석고, 형석	석탄 바나듐 탄갈륨 유황 중정석	아연 몰리브덴 니오븀 리튬 인	망간 수은 붕소	5위:철, 납 6위:구리, 금, 금강석	7위:알루미늄, 은 9위:니켈 10위:칼륨	

자료 : 陳其註編(1988), 『二千年中國的自然資源』, 상해인민출판사, 1988.PP70-71.

이와같이 중국의 산업·기술의 저변은 매우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크다. 특히 중국은 식품, 섬유·의류, 철강, 제련, 석유화학, 우주항공등의 분야에 산업기술기초가 광범하고 기술수준이 높으며, 가전·반도체·컴퓨터·통신분야에 있어서도 기초기술이 강함으로 한국과 산업·기술협력면의 보완성이 크다고 하겠다.

다. 화교경제·문화권의 관문으로 활용

중국은 중단기적으로 보아 우리의 상품시장, 가공수출기지, 산업·기업협력파트너이지만, 보다 장기적·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화교경제권의 핵심국가로서 해외화교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John Naisbitt는 「Megatrend Asia」란 책에서 21세기에는 민족경제가 발흥하는

시기로 중국인이 세계경제의 전면에 나서는 시기라고 예견하였고, 싱가포르의 리 관유 전수상은 제1회 화상대회에서 화교경제권의 돈이 중국 대륙의 시장과 결합될 때 중국인이 21세기 세계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중국이 중국 대륙자체로서도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지만 글로벌화의 측면에서 볼때에는 해외화인·화교와의 정보·자금·기술네트워크가 확대·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기업의 21세기 글로벌화 전략의 방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 중국진출의 위협요인

가. 국유기업의 비효율 및 부실채권 과다

현재 중국경제는 체제전환 및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WTO 가입에 따른 개방으로 보다 격심한 경쟁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대내외 과제가 지속적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IMF, OECD, Global Insight사 등은 부실채권, 재정적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성장이 지속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유기업은 구조조정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황이 여전히 부진하며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도 전체의 40%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는 국유기업이 고용안정 및 복리후생 등과 같은 국가차원의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대다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과거의 경영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이 제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에 18.1%까지 낮아졌지만 종업원 수 기준으로는 47.5%에 달하는 등 과잉고용 상태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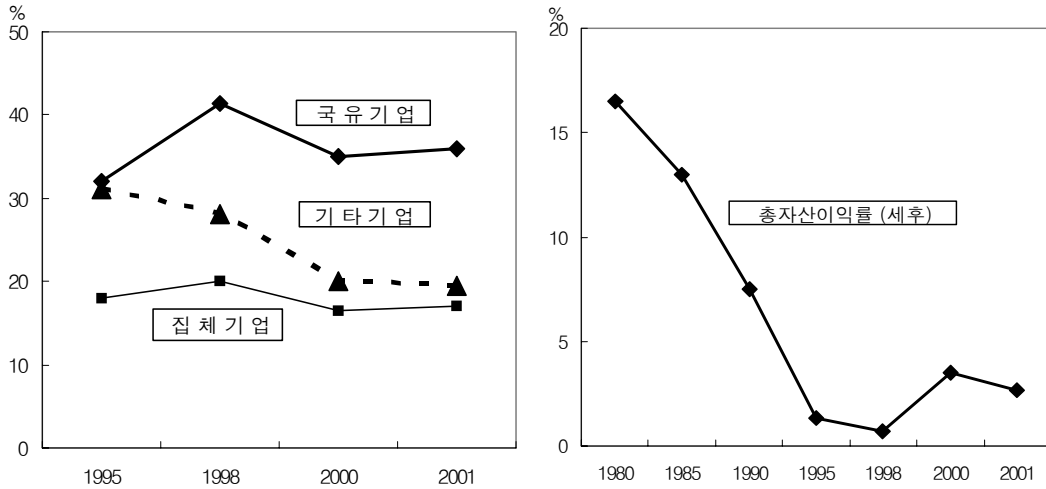
<표3-13> 국유기업이 제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분/년도	1990	1995	2000	2001
국유기업의 생산비중 (%)	56.4	34.0	23.5	18.1
국유기업의 고용비중 (%)	67.0	66.5	51.0	47.5

또한 국유상업은행으로부터의 과도한 여신(은행계정의 86%)에 의한 과잉설비 부담 등으로 수익성의 개선도 미흡한데, 총자산이익률(영업이익/총자산액)이 1998년 0.7%에서 2001년 2.7%로 높아졌으나 외자기업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도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국유기업의 경영부실은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주원인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인데, 금융기관 총자산의 64.5%, 예금의 67%(2001말 기준)를 차지하는 4대 국유상업은행의 2002년말 부실채권 규모가 총대출금의 21.4%, GDP의 16.6%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BIS 및 외국기관에서는 부실채권 비율이 공식발표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3-14> 제조업의 적자기업 비율 및 국유기업의 총자산이익률 추이



주: 1) 1998년 이후 제조업생산은 국유기업 및 매출액 500만위엔 이상의 비국유기업
 2) 기타기업은 사영·개인기업, 외자기업 등

이러한 부실기업 및 부실채권은 중국경제의 성장이 완만해지는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는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전망으로 중국진출시 상당한 장기적 위협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3-15> 4개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1997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부 실 채 권 (억위안)	14,829	19,098	17,656	17,016
(총대출금중 비중, %)	(25.0)	(25.0)	(25.4)	(21.4)
(대명목GDP 비율, %)	(19.9)	(21.4)	(18.4)	(16.6)

자료 : 중국인민은행 발표 및 언론 보도

특히, 1998년 이후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정부채무도 급증함에 따라 재정의 거시 경제 조정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데, 경기대책으로서 공공투자 및 사회보장지출확대, 공무원 급여 인상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재정적

자 규모가 GDP의 1% 미만에서 1998년 1.2%, 2002년 3.0%로 계속 급등하여 IMF가 경계하는 재정적자의 위험수준(GDP의 3%)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3-16> 재정적자 규모 추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재정적자(억위엔)	582	922	1,744	2,491	2,473	3,098
(대GDP비율, %)	(0.1)	(1.2)	(2.1)	(2.8)	(2.6)	(3.0)

자료 : 한국은행, 2003. 6.

인프라 확충, 내륙 및 농촌지역 경제개발 등을 위해 매년 1,000~1,500억위엔 규모의 장기건설 국채를 발행해 옴에 따라 외채를 포함한 국가채무잔고는 2001년말 20.3조위엔으로 GDP의 21.2%에 달하는데, 부실채권 관련 채무 및 연금채무 등 잠재적인 국가채무를 감안할 경우 IMF의 기준치(GDP의 30% 이내)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실업수당 부담, 부실채권 정리 비용 및 경기변동에 따른 정부지출 등 향후 요구되는 재정지출 부담도 늘어나 정부의 역할이 크게 제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나. 실업 증가 및 소득격차 확대

국유기업의 개혁에 따라 실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농촌인력의 도시 이동과 더불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도시지역의 실업률은 1990년 2.5%에서 2002년말 4.0%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국유기업의 잠재 해고자까지 포함할 경우 실업률은 7%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노동계약 관계는 유지되어 기초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3개월 이상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하강)로서 학력이 낮고 연령이 많아 재취업 가능성도 극히 낮다 하겠다.

<표3-17> 중국의 도시 실업률 추이

(단위: 만명, %)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12
도시지역 취업자수(A)	17,041	19,040	23,151	23,940	-
(국유기업 취업자수)	(10,346)	(11,261)	(8,102)	(7,640)	-
도시지역 등기실업자수(B)	383	520	595	681	751
도시지역 등기실업률(B/(A+B))	2.5	2.9	3.1	3.6	4.0

자료 : EIU 및 중국노동통계연감

향후에도 국유기업의 과잉고용 해소가 추진됨에 따라 실업자가 더욱 증가하는 가운데 1억 5천명으로 추산되는 농촌 유희노동력의 도시 이동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고용상황의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중국 인구의 70%(약 9억명)를 차지하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소비 등 내수 확대를 통한 안정성장 기반 확충이 제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도시·농촌간의 소득격차(1인당 가처분소득 기준)를 보면 1995년 2.5배에서 2001년 2.9배로 확대되었으며 도시 최고수준과 농촌 최저수준과의 격차는 동 기간 중 8.5배에서 9.2배로 확대되었으며, 1인당 소비지출의 격차도 2.5배에서 2.9배로 확대되었다.

표 3-18>도시·농촌간 소득및소비격차추이

<표3-19>1인당 GDP(2001년)

	소 득		소 비
	도시/농촌	도시최고/농촌최저	도시/농촌
1995	2.7배	8.5배	2.5배
2001	2.9배	9.2배	2.9배

동 부	1,565
상 해	4,515
북 경	3,083
중 부	649
서 부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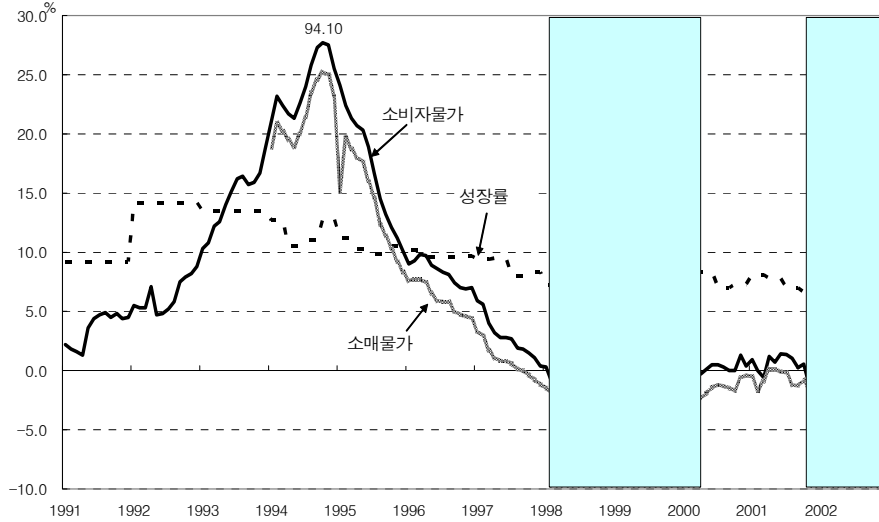
자료 : 중국통계연감

다. 디플레이션의 우려

소비자물가가 1998년 4월~2000년 5월 중에 이어 2001년 11월 이후 다시 하락세를 지속함으로써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가격이 제외된 소매물가는 1998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플레이션은 과잉설비, 생산성 향상, WTO 가입 이후 관세인하 및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공급측 요인과 1990년대 중반의 경기과열 해소를 위한 금융긴축, 농촌 저소득층의 소비부진, 교육비 및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에 대비한 저축률의 상승 등 수요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대체로 공급측 요인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3-2> 중국 물가 및 성장률 추이



디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기업수익 악화 → 고용감축 → 소득감소 → 소비위축의 악순환에 빠져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장기적으로는 소비 등 내수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하겠다.

이상에서 볼때 현재 까지는 중국시장의 기회요인이 잠재적 위협요인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나 장기적인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책도 중국 진출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장 대중국 투자현황과 한국기업의 과제

제 1 절 다국적기업들의 대중국 진출추이

1. 투자전략의 변화

다국적기업이 중국에 대한 투자전략을 새롭게 조정하는 것은 중국의 WTO 가입이라는 거시경제환경 변화 외에도 다음 몇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 개최와 2010년 상하이(上海) 세계무역박람회 개최이다. 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향후 5년 동안 경기장 건설 등 준비 작업으로 매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추가로 0.3% 포인트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08년 올림픽 개최 소요비용이 2,800억 위안(338억 달러)에서 최고 3,000억 위안(36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회 운영에 130억 위안(16억 달러), 경기장 건설에 170억 위안(21억 달러), 환경 개선에 713억 위안(86억 달러), 베이징市の 인프라 확충에 1,800억 위안(217억 달러)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둘째, 서부 대개발의 추진이다. 서부 대개발은 ①도로를 중심으로 철도·공항·천연가스 수송망·전력·통신·수리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②생태환경 보호와 개선, ③산업구조 조정, ④개혁심화와 개방 확대, ⑤과학·기술 발전과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가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며,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다양한 멀티미디어 제품과 자동차등 고급 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대이다.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고급 사양의 컴퓨터·CD 플레이어·DVD 플레이어, 이동전화, 디지털 TV, 가정용 오락기기 등의 수요가 크게 증대할 것이다. 이밖에도 전자상거래, 원격지 교육, 베이징市の 전자정부 구현 등에 따른 정보화 수요도 크게 증대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올림픽 개최로 HDTV 등 첨단 제

품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인구 1,200만 명인 베이징의 경우 2008년 디지털 TV 보급률이 20%수준에 달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TV는 100만 대 정도로 전망된다.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자동차 보급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제16기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장쩌민 총서기는 2020년에 중국의 1인당 GDP가 현재의 3배가 넘는 3,000달러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연간 7.2% 이상의 고도성장이 이루어져야 실현 가능한 목표다.

넷째, 저임 노동력의 지속적 공급이 가능하다. 인구의 70%에 달하는 농촌 인력이 경제개발과 더불어 도시지역으로의 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풍부한 저임 노동력이 장기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중국 시장 자체의 수요가 크다는 점과 더불어 중국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변모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다섯째, 도·소매 등 유·무형의 유통시장 발전이다. 시장개방 확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도소매 등 유통시장 진출이 가속되고, 정보화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유통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여섯째, 의약산업의 발전이다.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현재 7%를 점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의약산업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 금융산업 및 관광산업의 발전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개방에 따른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소득 증가 등에 따른 시장 확대는 과거 단순한 생산거점으로서의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지위와 역할 부여에서 벗어나, 중국을 글로벌 경제의 네트워크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국적기업이 중국의 WTO 가입을 전후하여 중국에서 취하고 있는 투자전략 변화의 내용을 보면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전략 조정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가전 등 일부 자본집약적 산업 등의 범용 소비제품에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들은 이들 소비재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보다는 구매 위주로 전환하고, 중국기업들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소비재의 경우는 고급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상위고소득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소비재 이외의 제조업은 상류 부문(upstream)에 해당되는 원자재와 부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범용 소비재의 경우 공급과잉 상태인데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는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는 반면, 원·부자재의 경우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관련 기술수준 낙후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들 원·부자재 분야로는 석유화학, 자동차, 정보통신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1990년부터 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화 조류에 부응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부문에 투자를 강화해왔다. 이를테면, 제조업의 경쟁력에 필요한 금융, 물류, 연구개발, 애프트서비스등의 부문이며, 최근 중국에서도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 소비자의 욕구와 기호를 반영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센터 설립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 투자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증가하여, 2002년 9월 말 현재 218개 지주회사가 설립되었다. 지주회사 설립과 더불어 아시아 지역 또는 중화권 지역 본부를 중국에 두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 상하이에는 아시아 및 중국 지역 본부를 설치한 기업이 184개이며, 이 가운데 세계500대 기업이 62개로 이는 중국 전체의 40%에 해당한다.

<표4-1> 다국적기업의 對중국 예상 투자규모(2002년 투자계획 발표)

(단위 : 억 달러)

	기 업	투 자 규 모
기업명	Royal Dutch/ Shell(영국/네덜란드)	45.0
	EVN Consortium(독일)	15.0
	BASF(독일)	11.2
	Nissan Motor(일본)	10.3
	Vivendi Universal(프랑스)	9.0
	NEC(일본)	8.5
	Hutchison Whampoa(홍콩)	8.5
	Microsoft(미국)	7.5
	HCBC Insurance(홍콩/영국)	6.0
	Hyundai(한국)	5.0
	Canon(일본)	5.0
	Alcoa(미국)	5.0
	Swire Pacific(홍콩)	4.8
	Societe Generale(프랑스)	3.6
	Tate & Lyle(영국)	3.5
	BP(영국)	2.6
	Daimler Chrysler(독일)	2.3
	Earth Communications(미국)	2.2
National Semiconductor(미국)	2.0	

주: 2억 달러 이상 투자규모임. ;자료 : Business China. 2002.

셋째, 투자지역의 집중화이다.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센터나 금융회사 설립에도 투자환경의 하드웨어적인 면이 크게 중시되어, 역외개발센터나 금융회사도 인프라가 잘 정비된 항구 주변이나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위해 제조업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주로 베이징(北京), 톈진(天津)의 환보하이 지역, 상하이(上海)의 장강(長江) 삼각주 지역, 광저우(廣州)의 주강(珠江) 삼각주 지역 등 공업이 발달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Nokia는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에 상황공업지구를 조성하여 정보통신 기지를 , Motorola는 톈진(天津)에 반도체와 정보통신 제품 생산기지를 각각 건설할 계획이다. 다국적기업의 집중화와는 달리 국가별로 관련 산

업 중심으로 특정지역에 집중화되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난다. 장쑤성(江蘇省)의 우장(吳江)시의 경제기술개발구에는 120개의 타이완 전자·정보통신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우시(無錫)시에는 일본의 Sony, Matsushita, Sharp, Hitachi, CMK, ALPS, Sumitomo, Marubeni 등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다.

<표4-2> 對중국 외국인투자의 지역별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 분	1995		1999		2000		2001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중국전체	454.6		403.2		407.1		468.8		
長 江 삼각주	上海	36.0	7.9	28.4	7.0	31.6	7.8	42.9	9.2
	江蘇	66.3	14.6	60.8	15.1	64.3	15.8	69.1	14.7
	浙江	13.2	2.9	12.3	3.1	16.1	3.9	22.1	4.7
	소계	115.5	25.4	101.5	25.2	112.0	27.5	134.1	28.6
珠 江 삼각주	廣東	120.2	26.4	116.5	28.9	112.8	27.7	119.3	25.4
	福建	42.1	9.3	40.2	10.0	34.3	8.4	39.2	8.4
	海南	7.2	1.6	4.8	1.2	4.3	1.1	4.7	1.0
	소계	169.5	37.3	161.5	40.1	151.4	37.2	163.2	34.8

자료 : 수은해외경제 2003. 4

넷째, 단독투자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다국적기업의 단독투자 현상은 중국의 개방화 정도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건수 면에서 단독투자가 합자를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1997년 하반기 이후부터로, 대체로 단독투자가 합자보다 많았으며, 실제 유입된 금액 기준으로는 2000년부터 합자를 추월하였다. 단독투자가 합자보다 많은 이유로 ①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점, ②시장경제체제의 진행이 가속되면서 종전처럼 중국 정부가 합자를 적극 권유하지 않은 점, ③합자가 기업문화의 차이로 의견 충돌이 잦은 등 쌍방이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반면, 단독투자기업은 이러한 제약이 없어 경제적 성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점, ④기술유출 억제 등 지적재산권 보호가 용이한 점, ⑤다국적기업 본사의 의도대로 산업내 또는 산업간 분업이 용이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다국적기업이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경우 일정 지분의 교환 방식으로 전략적 제휴관계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합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 진출 초기에 합자로 투자했던 기업들도 점차 지분인수를 통해 단독투자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지분을 거의 대부분 인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 같은 실례로 P&G를 들 수 있는데, P&G는 1998년 광둥(廣東)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기 위해 광저우 비누공장, 홍콩의 허지황푸 등과 합자하였으나, GSWO는 1%를 제외하고 모든 파트너의 지분을 인수하였다.

다섯째, 인수·합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UNCTAD의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인수·합병 규모는 매년 15 ~ 25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표4-3>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형태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00		2001		2002		2002 말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단독투자	156.3	38.7	238.7	50.9	317.3	60.2	1,619.8	36.2
합 자	158.4	39.2	157.4	33.6	149.9	28.4	1,920.0	42.9
합 작	82.2	20.3	62.1	13.2	50.6	9.6	844.1	18.8
기 타	7.1	1.8	10.6	2.3	9.6	1.8	92.6	2.1
계	404.0	100	468.8	100	527.4	100	4,476.5	100

자료 : 수은해외경제, 2003. 4.

이러한 면 프랑스의 Danone이 1996년도에 중국의 대표적인 광천수 기업인 와하하, 러바이스를 인수하고, ExxonMobil은 중국석유화학집단(SINOPEC)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정도였다. 지금까지 외국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저

조했던 것은 ①관련 법규 부재, ②다수 행정기관이 기업 관할, ③자본시장 미성숙, ④컨설팅 등 중개기구 미비, ⑤국수주의적 사고로 인한 자국기업의 해외매각 비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WTO 가입후 관련법이 제정되어 외국 기업의 중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향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기술이전 전략의 변화

다국적기업의 전략 변화와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것은 다국적기업의 중국 현지 법인에 대한 기술이전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국적기업은 먼저 중국의 기술수준, 연구개발능력과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다음 두가지 전략으로 기술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나는 모회사 첨단기술의 이전이고, 또 하나는 중국의 기술수준보다는 높되 모회사의 첨단기술보다 뒤떨어진 기술의 이전이라 할 수 있다. 48개 다국적기업이 투자하여 베이징시 과학위원회가 인정한 첨단기술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결과 모회사 기술수준의 최첨단 기술이 26.3%, 준(準)첨단기술이 42.1%이고, 준(準)첨단기술과 일반기술의 혼용이 31.6%로 나타났다. 중국의 관련기술 유무 기준으로는 중국 내 부재(不在)기술이 76.3%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다국적기업의 중국 현지법인의 기술수준은 모회사의 첨단기술이든 그렇지 않든, 전반적으로 중국에 없는 기술 내지는 첨단기술로 투자한다고 볼 수 있다.

기술이전의 수준은 다국적기업의 목표시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수출시장 지향형 기술이전은 중국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 등 저렴한 생산비용과 세제혜택을 활용하여 생산원가를 낮춤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모회사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중국을 세계적 생산기지로 이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출시장 지향형 기술이전은 거의 대부분 단독투자기업 형태로 진출하며,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합자의 경우도 외국인인 절대 다수의 지분을 확보하

여 경영권을 장악하는 형태가 많다. 수출시장 지향형 기술이전은 주로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많은데, Intel의 컴퓨터 칩 생산이나 Seagate의 메모리 설비 생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다른 경우는 중국 내수시장 지향형 기술이전이다. 중국의 각종 무역장벽을 우회함으로써 거대한 중국 시장을 확보하려는 경우로,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이 對 중국 투자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제조업 부문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1970년대 수준으로, 부분적으로는 선진국의 1980년대 기술수준으로 추정되며, 현재 전반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때문에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의 기술수준보다는 높되 모회사의 첨단기술이 아닌 기술로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서로 상이한 전략을 구사한다. 하나는 중국이 이미 당해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성능면에서 선진국의 기술수준에 비해 낮은 경우인데, 컬러 TV 생산을 위한 합자법인의 기술수준이 이 같은 범주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중국에 없는 기술로 진출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정보통신, 자동차 등에 많은데, 정보통신 분야는 Motorola, Ericsson, Nokia, Siemens, Bell 등이, 자동차 분야는 Volkswagen, GM, Honda enmd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수시장 지향형 기술이전은 결국 다국적기업들간의 경쟁으로 발전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중국에는 모회사의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면, Volkswagen은 1980년대 상하이에서 상하이자동차와 합자할 당시에 1960년대 모델인 Santana를 생산하였다. 그러다 1990년대 말부터 GM과 Honda가 Buick과 Accord를 각각 생산하자, Volkswagen은 Santana2000에 이어 기술수준이 보다 향상된 Passat 등을 출시하였다. 최근에 Ford는 가장 잘 팔리고 있는 Focus를 중국 시장에 출시할 것을 고려하고, 현재 중국 파트너를 물색 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기술이전 전략도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가속화와 더불어 변화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기술이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다국적기업의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기술전략이 생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즉, ①소규모 투자로 실험적 의미의 기술이전, ②규모의 경제에 필요한 기술 및 관련 응용기술의 지속적 이전, ③중국 내수시장 지향의 응용기술 연구개발센터 설립, ④세계시장을 위한 기초분야 구구개발의 순서로 변모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 시장의 다국적 기업들은 ②,③단계의 전략을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둘째, 기술이전이 피동적 이전에서 자발적 이전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 정부는 WTO 가입 전에는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이전을 위해, 첨단 기술을 이전할 경우 내수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또한 2001년 개정 전의 ‘외국인투자법’에서도 선진기술과 설비를 채택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이러한 강제적 요구사항들이 폐지됨에 따라, 기업들은 중국 시장과 세계 시장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위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기술이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 기술이전이 자동차, 가전 등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기술이전이 단순한 기술이전에서 연구개발센터 설립 등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WTO 가입에 따른 내수시장 지향형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연구개발센터 설립은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센터가 400여 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독립된 법인격의 연구개발센터도 124개에 달하며, 대부분 다국적기업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넷째, 기술이전 수준이 투자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외국기업의 경영권 장악 의도가 높고,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일수록 단독투자기업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합자투자 형태에서 경영권이 중국 측에 있는 경우보다 외국측에 있는 경우가 기술수준을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단독투자기업의 비중이 점차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기술이전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이전을 크게 핵심기술과 비핵심기술로 구분할 경우, 핵심기술은 제품의 핵심부품 생산기술로 자동차의 엔진, 컴퓨터의 칩, 전화교환기의 칩 및 프로그램, 에어컨의 컴프레서 등의 생산기술이고, 비핵심기술은 제품의 각종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상당수 기업이 비핵심기술의 이전에는 적극적인 반면, 핵심기술의 이전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8년 상하이 푸둥지역에 1,0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80개 기업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핵심기술을 이전한 경우는 13개 기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비핵심기술 이전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해 상하이, 난징(南京), 쑤저우(蘇州) 소재 다국적기업 기술이전의 조사에서도 조사대상 기업의 3/4이 비핵심기술을 이전하고 있었고, 핵심기술 이전은 1/4 정도로 나타났다. 중국에 투자한 Nokia, Motorola, Ericsson, Siemens, Seagate, Intel 등의 다국적기업들이 완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규모가 매출액의 60%를 차지하는 데서 핵심기술의 기술이전 정도가 낮음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제 2 절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현황

1. 대중국 투자의 권역별 분포와 변화

다양한 투자동기와 기술전략을 바탕으로 중국의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한 외국기업들의 중국진출고는 달리 <표4-4>의 한국의 대중국 지역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해운노선이 연결되는 환발해만지역의 산둥, 톈진, 라오닝등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베이징과 허베이를포함한 환발해만5개성에 대한 투자누계는 2002년 8월까지 전체 대중투자의 60.1%를 차지할 정도이다.

그런데 2000년기준으로 이들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누계(등기자본기준)가 중

국 전체 대중 외국인 투자누계의 21.6%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중국투자연감 2001년에서 계산) 환발해만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집중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환발해만지역(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둥, 랴오닝)에 대한 투자 집중 현상은 경제위기 이전인 1992-1997년 누계를 기준으로 할 때 60.4%에 달했고, 경제위기이후인 1998-2002년 누계를 기준으로 할 때도 59.2%에 달해 약간 하락하였을뿐 이지역에 대한 투자 집중 현상 자체는 변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각 성별로 투자 집중률의 변화를 관찰해 보면,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약하게나마 성별분포의 확산경향이 관찰된다. 1997년이전과 1998년 이후의 대중투자의 가 성별 집중력(해당 성에 대한 투자액/전체대중투자액)의 변화추이를 보면 한국 대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했던 톈진을 제외한 여타 발해만 지역과 동북3성 지역은 모두 집중률 하락이 가장 큰 지역에 속한다.

<표4-4> 한국의 대중국 지역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달러)

연도/지역	산동	요녕	길림	천진	북경	강소	상해	광둥	절강	기타	총계	
~1991	금액	25	12	1	4	3	5		4	24	11	65
	건수	28	23	6	6	10	5		6	1	16	101
1992	금액	49	16	3	8	27	5	5	9	1	18	141
	건수	69	33	11	18	6	6	5	7	2	13	170
1993	금액	88	44	14	24	14	18	5	12	1	43	264
	건수	107	77	30	49	26	18	9	10	2	53	381
1994	금액	204	59	25	108	31	57	34	26	2	88	633
	건수	208	189	88	91	66	41	22	19	10	107	841
1995	금액	291	75	38	85	70	90	98	21	10	60	838
	건수	208	157	81	77	46	33	29	17	17	83	748
1996	금액	241	125	35	102	99	83	107	33	9	58	893
	건수	224	153	87	60	32	35	31	10	23	78	733
1997	금액	139	81	18	42	39	131	127	19	50	71	716
	건수	197	116	76	68	23	38	23	14	11	62	627
1998	금액	179	29	5	168	31	75	32	76	62	23	679
	건수	85	36	31	26	12	15	12	5	9	29	26
1999	금액	62	32	17	57	36	49	39	2	9	43	348
	건수	185	79	68	16	14	30	16	5	14	27	454
2000	금액	204	60	9	56	67	75	14	7	21	30	605
	건수	298	111	72	66	46	39	29	18	22	52	753
2001	금액	176	35	14	98	13	76	29	15	42	41	544
	건수	417	135	54	82	64	61	69	30	34	75	1,022
2002	금액	181	131	11	62	97	123	55	30	58	24	724
	건수	466	54	38	111	77	107	97	42	92	34	1,023
계	금액	1,841	621	191	814	528	786	546	254	607	510	6,452
	건수	2,492	1,240	642	670	422	428	342	183	686	629	7,293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반면 저장성, 장쑤성등 장강 삼각주 지역과 후난성, 광둥성등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중투자가 한국과의 지리적 인접

성이나 재중교포를 매개로 의사소통의 편리함등에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표4-4>는 8대 권역 구분에 기초해 1992년부터 2002년 8월 까지 이루어진 한국기업의 대중투자 누계의 권역별 분포를 보면 우선 산둥, 톈진, 베이징, 허베이를 포함하는 북부연해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체투자의 절반이상(50.4%)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동부연해지역이 24.6%로 1/4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북지역은 15.6%를 차지한다. 이들 3개 권역을 합하면 전체 대중투자의 90%를 상회한다. 이러한 한국 대중투자의 권역별 분포는 세계 각국의 대중투자의 권역별 분포와 비교할 때 몇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부연해지역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2001년의 경우 세계 각국의 대중투자중 이 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은 전체의 17.5%였으나, 한국기업의 투자는 세배가 넘는 53.5%가 이 지역에 집중되었다.

둘째 남부연해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은 매우 작다. 2001년 세계각국의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권역이 바로 이 남부연해지역이었는데(35.2%) 이 권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는 전체의 3%에 불과한 실정이다. 1992-2002년까지의 누계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한국기업의 이권역에 대한 투자는 5%에 불과하다.

셋째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 역시 세계 각국의 투자에 비해 많은 편이다. 세계 각국은 이 권역에 2001년 6.9%를 투자하였는데 한국은 2001년에 9.4%, 누계로는 15.6%를 투자하였다.

넷째 한국의 투자는 권역별 집중도가 높다. 한국은 상위 3개 권역에 (동북, 북부연해, 동부연해)전체 투자의 90%이상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대중투자에서 상위 3개 권역(북,동, 남부연해)의 비중은 81.6%이다.

권역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의 투자누계의 권역별 비중을 비교해 보면, 경제위기를 전후해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의 비중은 18.9%에서 10.9%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북부연해지역과 동부연해지역에 대한 투

자비중은 모두 약간씩 늘어났으며, 기타지역에 대한 투자도 약간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경제위기 전후에 대한 누계만을 기준으로 보면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이 줄어든 것 말고는 별다른 변화의 추세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2-2002년까지의 권역별 투자분포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몇가지 특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즉, 1992년과 1993년에는 북부연해지역 및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체투자의 8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신 동부연해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동부연해지역의 투자비중은 다시 낮아지고 북부연해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여타 권역에 대한 투자비중은 1990년대 내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2002년 들어 남부연해지역에 대한 투자가 약간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의 대중투자는 초기에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재중교포를 활용할 수 있는 북부의 두 권역으로 집중되었다가, 점차 종합적인 투자환경면에서 가장 앞서는 동부연해지역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추세가 다시 반전되었다. 동부연해지역이 투자환경 중에서 특히 가장 시장환경면에서 앞서는 권역임을 고려할 때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대기업중심의 중국 내수시장 지향형 투자로 전환하는 추세로 보였으나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추세에 제동이 걸렸음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동북, 북부연해, 동부연해지역등 한국의 투자가 집중된 3개 권역에 대한 투자액의 절대규모 면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2. 대중국 투자의 특징

한국기업의 대중투자가 보이는 특징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업종

면에서는 제조업중심, 규모면에서는 소규모투자, 지역면에서는 환발해지역 집중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1997년)는 1996년까지의 대중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대중투자의 빠른 증가, 환발해 지역에 대한 투자 편중, 제조업에 집중, 작은 투자규모등을 한국기업 대중투자의 특징으로 제시하였다.¹⁵⁾ 또 김익수(1999년)는 중소기업에 의한 원가절감형 투자, 제조업중심의 투자, 발해만 지역으로의 집중, 다수지분 전략등을 꼽고 있다¹⁶⁾. 김주영(2002)역시 높은 제조업 비중, 소규모 투자위주, 높은 중소기업투자비중, 환발해만 지역에 대한 투자 편중등을 지적하였다.¹⁷⁾

여기서는 한국기업의 대중투자의 특징을 투자동기, 업종, 규모 및 주체면에서 살펴본다. 특히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이러한 특징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 본다.

가. 투자동기

한국기업의 대중투자 동기는 비용절감에서 시장 개척으로 점차 변화해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투자는 초기에는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았으나, 중국 내수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기업의 중국 진출동기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표4-5> 참조) 즉 1990년대 중반까지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중국진출동기로서 중국의 저임금을 활용한 생산비용 절감이 중국시장개척보다 더 중요한 동기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전보다 더 중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향후 5년후의 중국투자 목적에 관해서는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응답이 2배이상 더 많았다¹⁸⁾.

15)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현황과 전망」, 1997.

16) 김익수, 「중국투자론 -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9. pp333~334.

17) 김주영, 「한국의 대중국 투자 10년의 평가와 전망」, 2002, 한국수출입은행.

이러한 변화는 현지투자 한국기업의 매출구조변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의 경우 현지법인의 매출은 주로 한국으로의 재수출이나 제3국으로의 수출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1993년말 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투자한 제조업 현지법인 매출중에서 한국으로의 역수출이나 제3국 수출의 비중은 73.6%에 달한 반면 중국 내수 판매의 비중은 26.4%에 불과하다¹⁹⁾.

<표4-5> 중국 투자의 동기

연구	조사연도	저임금(비율%)	시장(비율%)	비고
한국무역협회 (1995)	1993	임금이저렴	현지시장이 크고 유망	173개사 설문조사 제조업
		26.8	18.7	
대한상공회의소 (1997)	1996	상대적 저임금	현지시장개척	182개사 설문조사 제조업,복수응답
		56.6	52.6	
대한상공회의소 (1998)	1998	저임금 및 저지가 활용	중국 내수시장개척	264개사 설문조사 복수응답가능
		43.2	30.5	
대한상공회의소 (2002)	2002	저렴한 노동력 활용한 비용절감	거대시장활용한 시장개척	70개사, 진출목적에 관한 질문, 복수응답
		25.5	25.5	
	2002	14.0	30.0	5년후 활용목적

그러던 것이 1998년 상공회의소의 조사에서는 한국 및 제3국으로의 수출비중은 68.3%, 내수판매가31.7%로 변화하여 내수판매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

18) 대한상공회의소, 「중국진출기업의 진출목적 및 애로사항 조사」, 2002. 8.

19) 한국무역협회, 「중국투자 우리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 1995, p.74.

로 나타났다²⁰⁾. 또 수출입은행의 건당투자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경영현황분석에 따르면 1999년 이후 대중투자기업의 내수 매출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투자기업의 현지매출비중은 1999년 44.5%에서 2001년 50.0%로 높아졌다.

<표4-6> 중국 현지법인의 매출구조(1999 - 2001년)

년도/구분	현지판매	대 한국수출	제3국 수출	비고
1999	44.5	24.1	31.5	
2000	46.6	24.5	28.8	
2001	50.0	21.5	28.5	

자료 : 수출입은행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경영현황 분석」 각년도.

미국 및 EU기업들의 경우에도 이미 대중투자에서 내수시장 지향형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Fung et al(1999)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저임금 보다는 중국 내수시장을 보다 중요한 투자 동기로 삼고 있고 이를 입지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 최근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이 실시한 EU기업의 대중국 투자동기에 관한 수출입은행의 2002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잠재시장을 “매우 중요”한 투자 동기로 꼽은 기업은 77.2%였던 반면 저임 노동력이나 토지가격과 임대료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한 비율은 22.6%와 12.3%에 불과하였다.

나. 업종별 특징

한국의 대중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의 누계를 볼 때 제조업이 대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기준으로

20) 대한상공회의소,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영실태와 장애요인」, 1998.

86.9%, 액수기준으로 84.2%에 달한다. 이는 동기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중에서 제조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면에서 61.5%, 금액면에서 54.2%인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김주영 2002). 시계열적으로도 제조업 위주의 투자패턴은 경제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경제위기 이후 오히려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제조업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대중투자규모가 자체가 줄어들면서 경기에 민감한 서비스업종등 비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더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표4-6>에서 보면 제조업 위주의 투자는 지속되고 있지만, 제조업내의 투자업종면에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전반까지는 섬유·의복, 음식료품, 신발·가죽등 소비재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이상을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소비재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전자통신, 석유화학, 1차금속, 조립금속, 기계장비등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부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1997년에 50%를 넘어섰고 2002년 8월 현재 전체 투자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자통신산업은 1998년 전체제조업 투자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였다. 이후 전자통신산업의 그 비중 자체는 감소하였으나 순위면에서는 2002년까지도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대중투자가 고도화되고 있으며, 한국기업들이 중국의 산업발전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및 부품산업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4-7> 한국의 대중국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달러)

년도	업종	제조업								비제조업					
		음식 료품	섬유 의복	신발 가죽	석유 화학	조립 금속	전자 통신	기타	소계	농림 어업	건설 업	운수 업	도소 매	기타	소계
~ 1991	금액	6	9	10	6	0.04	7	25	63	0.1		0.5	0.1	1.2	1.9
	건수	7	19	10	2	1	9	45	98	1		1	1	5	8
1992	금액	3	35	12	2	10	16	40	118	1			0.2	22	24.2
	건수	9	47	10	4	10	14	66	160	7			1	2	10
1993	금액	8	84	22	13	7	25	94	253	3	2	3	2	4	14
	건수	21	105	33	32	13	24	127	355	6	2	0	3	15	26
1994	금액	26	104	34	30	18	145	224	581	6	12	7	4	22	51
	건수	67	194	45	61	33	58	245	703	17	9	13	30	69	138
1995	금액	55	123	45	65	13	143	267	711	4	26	16	12	70	128
	건수	60	132	44	65	31	68	248	648	11	9	10	19	51	100
1996	금액	43	106	26	81	18	183	248	705	7	52	6	41	82	188
	건수	66	126	47	58	35	53	253	638	25	10	1	21	39	96
1997	금액	18	53	11	64	9	41	289	485	1	44	6	15	165	231
	건수	38	117	27	47	33	57	226	545	10	6	7	18	42	83
1998	금액	7	24	9	52	5	298	195	585	2	18	4	3	65	92
	건수	12	66	12	20	7	23	78	218	5	1	3	16	15	40
1999	금액	9	14	22	51	6	109	75	286	1	12	2	1	43	59
	건수	33	100	35	24	20	30	166	408	6	3	3	13	21	46
2000	금액	12	27	22	63	12	122	197	445	1	16	16	28	90	151
	건수	46	124	55	53	24	91	260	653	8	2	2	27	61	100
2001	금액	28	94	25	55	18	154	135	590	2	1	2	13	17	35
	건수	61	146	82	82	37	130	347	884	7	4	2	41	84	138
2002	금액	30	74	21	71	30	161	236	623	3	29	4	23	42	101
	건수	64	166	60	88	61	197	379	1,015	12	5	7	62	102	188
계	금액	245	747	259	553	146	1,399	2,026	5,375	32	212	66	142	624	1,077
	건수	484	1,342	460	535	305	754	2,440	6,320	115	51	49	252	506	973

자료 : 수출입은행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경영현황 분석」 각년도.

다. 주체 및 규모의 특징

<표4-8> 한국의 대중국 기업규모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달러)

연도/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1	21	28	80	37	101	65	
1992	14	55	156	86	170	141	
1993	36	72	345	192	381	264	
1994	92	344	749	289	841	633	
1995	91	493	657	345	748	840	
1996	73	565	661	328	734	893	
1997	50	544	578	175	628	719	
1998	20	588	238	90	258	677	
1999	11	248	443	99	454	348	
2000	13	413	740	191	753	605	
2001	16	245	1,006	299	1,022	544	
2002	29	282	1,174	442	1,203	724	
누계	466	3,877	6,827	2,575	7,293	6,452	

자료 : 수출입은행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경영현황 분석」 각년도.

<표4-8>의 투자 주체면에서 한국의 대중투자는 첫째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에 비해 중소기업에 의한 투자의 비율이 높고, 둘째 중소기업이 투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다가 경제위기 이후 다시 늘어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1992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대중투자 누계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건수면에서 73.6%, 액수면에서 3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에 대한 한국기업의 직접투자누계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면에서 64.6%, 액수면에서 2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투자주체의 시간적 변화를 보면 중국에 대한 투자액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폭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비중은 1994년 72%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경제위기를 맞아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격감한 1998년에는 12%까지 급감하였다. 그러던 것이 1998년 이후 중소기업의 비중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해서 2002년 10월 현재 54%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의 해외투자 전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와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유의할 것은 중소기업 비중이 빠른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을 제외하고(2000년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던 이유는 당시 한국IT벤처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붐을 이루었기 때문으로 보임) 모든 해에 걸쳐 대중투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해외투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더 높게 유지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첫째 중국에 대한 투자가 한국의 임금상승등의 이유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진 중소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대기업들의 경우 중국의 시장경제화 전망에 대한 확신이 서고 중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점진적으로 중국 투자에 나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가 중소기업에 비해 늦었다. 1990년대 중반이후 중소기업 투자의 비율이 낮아지고 대기업투자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이러한 투자 결정의 시차가 중요한 이유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경제위기 이후 중소기업이 대중투자나 해외투자 전체에서 점하는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저임금 활용형 투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주로 IT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대중투자의 업종별 분포에서 전자통신 업종의 비중이 커진 것에서도 확인 된다. 그런데 IT기업의 경우 중국의 발전하는 IT관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 즉 1990년대 전반의 중소기업 중국진출과 비교할 때 IT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중국 진출에는 중국 내수시장 지향적 성격이 강하다

고 볼 수 있다.

<표4-9>의 건당 투자 규모면에서 한국의 대중투자는 여타국가에 대한 투자에 비해 작은편이다. 1992-2002년까지의 대중투자의 평균 투자규모는 88만달러 수준인데, 한국기업의 전체 해외투자의 건당 평균 규모는 243만 달러였다. 대중투자의 평균규모는 전체 해외 투자 평균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36%).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중에서 중소기업의 소규모 투자가 많다는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한편 2001년 중국에 대한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계약건수는 26,140건으로 계약액 기준으로 약692억 달러, 실행액기준으로 약469억 달러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세계 각국의 대중투자의 건당 평균 규모는 2001년 건당 계약기준 264만달러, 실행기준 179만달러로 2001년 한국 평균 규모인 53만달러에 비해 각각 5배 및 3.4배에 달한다. 즉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규모는 한국의 대외투자 평균과 비교해서나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투자평균과 비교해서 매우 작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표4-9> 대중국 년도별 투자 규모

년도	실행건수	금액	평균금액	비고
~1991	101	65	0.64	
1992	170	141	0.83	
1993	381	264	0.69	
1994	841	633	0.75	
1995	748	840	1.12	
1996	734	893	1.22	
1997	628	718	1.14	
1998	258	677	2.62	
1999	454	348	0.77	
2000	753	605	0.88	
2001	1,022	544	0.53	
2002	1,203	724	0.60	
계	7,293	6,452	0.88	

자료 : 수출입은행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경영현황 분석」 각년도.

다음으로 1990년대 건당 투자규모의 추이를 보면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에 상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대중투자의 건당 규모는 대기업 투자비중의 증가로 1998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여 1998년에는 260만달러 수준까지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이후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2002년의 투자규모는 53만 달러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1998년에 건당 투자규모가 급증하였던 것은 해외투자 전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추세로서 경제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투자가 대부분 줄어든 반면 기존의 대규모 투자 계획들만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시기 대중투자 총액 자체는 1997년 7억2300만 달러에서 1998년 6억7700만달러로 감소하였다.

대기업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규모의 확대가 관찰되고 있다. 서봉교(2001)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건당 투자규모는 1997년 이전 평균 500만달러 수준에서 1998년 이후 평균 2,000만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표4-10>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중국진출 현황과 특징

기업	주요진출지역 및 업종	특징 및 전략
삼성	- 북경, 천진 : 전자, 전기 - 상해, 소주 : 가전,반도체, 금융(보험) - 광둥성(동관, 심천, 혜주) : 전자, 전기	- 고부가가치 분야 지향 - 생산기지 차원이 아닌 전략적 시장, 고급브랜드로 차별화
LG	- 북경, 천진, 상해 : 전자, 부품, 통신 - 호남성 장사 : 컷, CDT - 항주 : 생활건강(화장품)	- 가전, 생활화학등 소비자와 직접접촉하는 품목 다수 - 마케팅, 브랜드이미지 구축 주력 (철저한 현지화 지향)
SK	- 북경 : SK텔레콤 - 상해 : SK 차이나	- 철저한 중국기업화 지향 - 현지법인 대표를 중국인으로 임명
현대자동차	- 북경 : 북경자동차공업집단과 합자계약 - 강소성 : 자동차 생산법인	- 상해 중국총괄본부의 기능 강화 - 현지 생산체제 조기 구축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WORLD REPORT」 제71호 p 22~23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중국투자 전략 방향의 특징은 중국내수시장을 지향한 투자로서 적극적 현지화를 통해 현지완결형 경영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삼성, LG, SK 등은 중국에 제2의 본사격인 현지법인을 강화하여 현지에서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모든 영역을 관할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으로 이는 괄목할 만한 변화라 하겠다.

<표4-11> 주요 대기업의 중국 투자진출 현황

(단위 : 천만\$)

기업명	투자건수	주요 사업 내용		
		사업명	장소	투자금액
현대	17	컨테이너 제조	칭도, 광둥, 상해	6.7
		반도체 생산	대련	12.0
		하드디스크 생산	상해	2.1
		중형기계제조	상주	2.0
		자동차 음향기기	천진	1.5
삼성	16	컬러브라운관 생산	심천, 천진	98.8
		반도체 생산	소주	15.0
		가전제품 생산	소주	14.1
		컬러TV 생산	천진	8.8
		VCR 생산	천진	8.5
엘지	30	에어컨, 전자레인지	천진	19
		브라운관 생산	장사	12
		PVC 생산	천진	9
		ABS 생산	절강성 영파	9
		냉장고 생산	태주	8
대우	58	호텔, 백화점(연사)	북경	27.3
		시멘트	산둥	29.9
		자동차부품	산둥	98.4
		전자부품 및 가전	천진, 심천, 위해 등	9.1
		부동산(비즈니스)	상해	42.0
금호	8	타이어	천진, 남경	12.0
포철	7	아연도 강판	대련, 장가항, 순덕	24.1

자료: 주중국대사관 자료참조(2000.12월말 현재)

3. 대중국 투자기업의 청산 현황 분석

최근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에 있어는 청산 및 철수가 다른 국가나 지역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산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 한국 기업의 무분별한 대중진출과 현지경영의 위협요인에 대한 충분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뿐 아니라 대중진출의 사업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응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표4-12>의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청산 현황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말 현재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청산건수와 청산을 통한 회수금액이 각각 152건, 8억 5,720만달러인데, 이는 2002년말 현재 투자기준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7,293건에 64억5,200만달러이며, 이에 대한 청산기업의 건수비중은 중국전체투자기업의 2.1%에 해당한다. 그러나 2001년중 LG전자와 대우의 현지법인 매각 수익을 제외할 경우 건당 83만 달러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LG전자가 1억 66만 달러를 투자한 호남성 칼러 TV브라운관 공장의 매각수익 5억 9,030만 달러와 대우가 3,600만 달러를 투자한 절강성의 7개 이동전화서비스 사업 매각 수익 1억 1,128만달러를 제외하면 83만 달러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²¹⁾. 청산한 152개 기업 가운데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이 32개로 전체청산기업의 21.1%를 차지하는데, 이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71.9%, 대기업이 28.1%이다.

2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3. 4. 4. 보고서 참조 .

<표4-12>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청산 현황추이

(단위: 건수, 백만달러, %)

년도	건수	A투자금액	B청산금액	비고
1993	2	3.6	0.5	
1994	9	20.9	2.5	
1995	9	4.5	3.7	
1996	24	68.7	11.3	
1997	19	3.2	3.1	
1998	14	11.4	9.7	
1999	20	93.4	87.1	
2000	12	36.9	6.4	
2001	26	163.4	730.8(C)	
2002	17	5.7	2.1	
계	152	411.7	857.2	

주: A. 청산기업의 투자금액, B. 청산기업의 회수금액, C. LG전자와 대우의 매각수익 포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3. 4. 4. 보고서 참조 .

<표4-13>의 기업별 청산비율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별로는 대기업의 청산비율이 중소기업의 청산비율의 6배에 해당하며, 투자건수 기준으로 청산기업 가운데 대기업의 청산비율이 9.9%로 중소기업의 1.6%보다 6배나 높게 나타났다.

<표4-13> 기업규모별 청산비율 현황 (2002년말 기준)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비고
투자건수(A)	466	6,827	
청산건수(B)	46	106	
청산비율(B/A)	9.9	1.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3. 4. 4. 보고서 참조 .

<표 4-14>의 업종별 청산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전업종가운데 투자 대비 가장

높은 청산비율을 보인 업종은 건설업, 운수창고업, 통신·부동산 등 기타서비스업, 농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우리기업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투자건수 대비 청산비율이 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4-14> 업종별 청산비율 현황 (2002년말 현재)

구 분	건설업	운수창고업	농업	기타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비고
투자건수(A)	51	49	115	506	252	6,320	
청산건수(B)	4	3	4	17	6	118	
청산비율(B/A:%)	7.8	6.1	3.5	3.4	2.4	1.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3. 4. 4. 보고서 참조 .

<표4-15>의 지역별 청산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의 중국 省별 투자비중을 고려할 때 청산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지역은 절강, 후룡강, 북경, 광둥, 길림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절강의 경우 중국의 유대인이라 할 만큼 상업의식이 높은데다 중소 민간기업이 가장 발달한 점이 우리기업의 사업을 어렵게 한 것으로 보여지며, 후룡강·길림의 경우 우리동포 활용 측면에서 진출하였으나, 개혁개방의 진전지연에 따른 시장경제의식 미흡, 시장협소등이 어루어져 청산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북경으로의 투자가 내수시장 지향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보수성향의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광둥의 경우 개방의 전초기지로서 홍콩, 대만등의 자본이 일찍이 진출함에 따라 후발주자인 우리기업들이 현지 상관습과 시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4-15> 지역별 청산비율 현황(2002년말 현재)

구분	절강	후룡강	북경	광둥	길림	상해	강소	요녕	산둥	천진	총계
투자건수(A)	196	265	422	183	642	342	428	1,240	2,492	670	7,293
청산건수(B)	9	12	16	7	14	7	8	24	42	8	152
청산비율(B/A:%)	4.6	4.5	3.8	3.8	2.2	2.0	1.9	1.9	1.7	1.2	2.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3. 4. 4. 보고서 참조 .

이와는 달리 우리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천진, 산둥, 요녕 등의 경우 투자비중 대비 청산이 가장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지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수출지향의 투자를 한 점과 淸島, 威海, 大連 등 지역을 중심으로의 투자밀집에 따른 상호 정보교환등으로 역정을 헤쳐나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내수시장 지향의 투자로 부상중인 上海, 江蘇의 경우 투자비중 대비 청산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데서 향후 동지역에 대한 투자진출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표 4-16> 투자형태별 청산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의 대중국 투자에서 합자(작)기업의 투자건수대비 청산비율이 2.7%로 단독투자의 1.7%에 비해 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당초 합자(작)의 목적이었던 중국 내수시장 개척등에서 중국측 파트너의 역할이 기대이하였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표4-16> 투자형태별 청산비율 현황 (2002년말 기준)

구분	합자(작)투자	단독투자
투자건수(A)	2,779	4,514
청산건수(B)	76	76
청산비율(B/A)	2.7	1.7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3. 4. 4. 보고서 참조 .

<표4-17>의 기업규모별 투자후 청산까지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중국에 투자한지 3년 이내에 청산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68.4%를 차지할 정도로 높으며, 5년 이내 청산은 무려 84.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투자후 3년 이내 청산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해 보면 각각 79.2%, 43.5%이고, 5년 이내는 89.6%, 73.9%로 나타났다. 심지어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 1년만에 청산을 한 경우도 중소기업 전체의 17.9%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처럼 우리기업이 조기 청산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꾸준한 조사와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후 투자하기보다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감각적인 판단과 투자지역 정부의 호의적인 태도 및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반영한 짜맞추기식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으로 인한 선부른 의사결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대기업도 크게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4-17> 기업규모별 투자후 청산까지 소요기간

(단위:건수)

기간/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비고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1년 이내	2	4.4	19	17.9	21	13.8	
1~3년	18	39.1	65	61.3	83	54.6	
3~5년	14	30.4	11	10.4	25	16.4	
5년 이상	12	26.1	11	10.4	23	15.1	
계	46	100	106	100.0	152	1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3. 4. 4. 보고서 참조 .

<표4-18>의 업종별 투자후 청산까지 소요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투자에서 청산까지의 기간이 짧은 업종으로는 도·소매업, 통신·부동산 등 기타서비스업, 농업, 건설업등이며, 이들 업종의 경우 개방화 정도가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지방이기주의 등 보이지 않는 차별적 대우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KOTRA²²⁾와 대한상공회의소²³⁾의 중국진출기업의 진출목적과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독자기업의 경우 법제도의 미정비와 우수한 관리층 확보가 각각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의 비효율성(12.3%), 대금회수(10.0%)가 경영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합작기업의 경우 우수한 관리층 미확보(13.6%)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법제도의 미정비

22) KOTRA와 산업자원부에서 2002. 11. 5~11. 19에 걸쳐 12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참조.
 23) 대한상공회의소 2002.8월 중국진출기업의 진출목적 및 애로사항 조사와 무역일보 46호 (2003. 10.27) pp78~80.

(11.9%), 세무문제(11.9%), 행정의 비효율(10.2%), 합작처와의 트러블(10.2%)의 순서로 나타나 합작기업에 있어서도 합작처와의 트러블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4-18> 업종별 투자후 청산까지 소요기간 현황

(단위:건수)

기간/구분	건설업	농업	도·소매업	운수· 창고업	제조업	기타	계	비고
1년 이내	1		1		18	1	21	
1~3년	2	3	4	1	60	13	83	
3~5년	1	1	1	1	19	2	25	
5년 이상				1	21	1	23	
계	4	4	6	3	118	17	15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3. 4. 4. 보고서 참조 .

또한 사업철수의 이유로는 사전조사미흡(40.8%), 투자업종 선정 실패(29.5%), 중국내수부진(11.1%), 현지파트너와의 불화(9.8%), 중국기업과의 차별대우(7.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KOTRA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 법적·제도적 환경미비(18%), 통관 및 세무(17.1%), 대금회수(13.4%), 현지상관습(11.2%), 언어장벽(10.6%), 교통 및 통신 등 인프라 미비(7.5%)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중국 직접투자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위험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가 부족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과 거대 시장을 노리고 진출했으나 중국의 빠른 임금상승과 산업구조 고도

화 등과 같은 현지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규투자의 경우에도 중국의 기술수준이 급속하게 향상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진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외환위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미국, 일본, EU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로 한국기업들이 공격적인 경영에서 방어적인 경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따라서 비교적 수익성이 낮은 대중국 투자 사업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즉흥적인 결정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며 시장 전망과 현지 소비수준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없었으며,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상관습과 상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중국의 시장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 3 절 한국기업의 대중국 경쟁력 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인하여 중국시장은 이제 각국기업의 경연장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기업이 대중국 직접투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계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제경쟁력은 경제문제를 분석하는 핵심적 개념으로 자체가 비교대상을 전제로 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분석대상과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기에 일치된 정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기도 어렵다.

중국 정부의 공식 정의에 따르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란 ①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및 독자적인 지적재산권 보유, ②건전한 마케팅 네트워크 및 일정한 시장 점유율 유지, ③선진적인 경영기법 및 인사관리 제도 도입, ④기업의 생산성이 동종 업종의 선진국 기업수준에 도달, ⑤이윤창출 능력과 위험 회피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⁴⁾

24) 대외정책연구원, “중국현안브리핑”, 02-30호, 2002. 4. 8.

기업경쟁력의 주요 요인으로는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가격경쟁력으로는 물가, 임금, 생산성, 금리, 환율을 들 수 있으며, 비가격경쟁력으로는 기술수준, R&D, 브랜드 이미지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격경쟁력요인중 노동비용대비 노동생산성비율을 통하여 파악하였으며, 비가격경쟁력은 브랜드이미지, 기술수준, R&D투자비중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경쟁력의 측정은 교역조건과 현시적비교우위방법인 시장점유율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1. 한국기업의 경쟁력 분석

가. 가격 경쟁력 비교

아래의 <표4-19>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미국 등의 주요선진국에 비하여 저렴하나, 싱가포르, 대만, 홍콩등 중국내 경쟁국과의 비교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비용대비 생산성의 경우 모든 국가들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과의 비교²⁵⁾에 있어서는 국내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중국현지에 비해 10배, 중국을 포함한 해외 현지에 비해서는 평균 5배 수준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가격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5) 한국경제연구원, 2003. 8. 1 보도자료

<표4-19> 우리나라와 주요국과의 노동생산성 비교

국가	노동생산성 (2002년, 달러 기준, GDP/취업자수)	시간당 노동비용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2002년, 달러 기준)	노동비용 대비 노동생산성 비율 (미국=100)
호주	42,547**	15.55(14.47**)	110.79**
프랑스	57,408	17.42	98.85
독일	51,452	25.08	158.79
일본	63,032***	18.83(19.61***)	101.35***
한국	21,510	9.16	138.73
스웨덴	55,283	20.18	118.92
영국	56,562	17.47	100.62
미국	67,109***	21.33(20.60***)	100.00***
싱가포르	41,475***	7.27(7.56***)	59.37***
대만	29,969***	5.41(5.70***)	61.95***
홍콩	52,108***	5.83(5.96***)	37.27***

주 : *, **, ***는 1999년, 2000년, 2001년 기준

자료 :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2003. 및 Bureau of Labor Statistics, International Comparison of Hourly Compensation Costs for Production workers in Manufacturing, September 2003.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3. 참조

나. 비가격경쟁력 비교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결과 우리나라 과학경쟁력이 세계 10위(49개국중)로 평가됐다고 발표하였는데, 연구개발자원 투입 측면에서 보면 연구개발투자 세계8위 및 연구개발인력 세계9위를 기록했으며, “산출 측면에서도 기업연구원 1000명당 특허등록건수가 세계1위, 내국인 특허등록건수 세계3위, 해외취득 특허건수가 세계 10위”라고 발표하였다.

IMD 발표에 따르면 국가별 과학기술 경쟁력은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스위스, 4위 독일, 5위 스웨덴, 6위 핀란드, 7위 프랑스, 8위 영국, 9위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경쟁력에서 첫 톱10에 진입하기는 했으나 아직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데, 즉 인구 1000명당 연구개발 인력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는 ‘전반적 지식증진’ 부분의 투자비율(20.9%)을 일본(49.5%), 독일(55.0%)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기업브랜드의 경우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핵심인력의 해외유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20> 대외브랜드 이미지와 핵심인력 유출 정도의 국가별 순위 비교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대외이미지	29위	5위	18위	9위	22위	24위
핵심인력 유출정도	39위	1위	18위	46위	10위	26위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2.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한국의 대외브랜드 이미지가 조사대상국 49개국 중 29위로 미국(5위), 영국(18위)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9위), 대만(22위), 말레이시아(24위)등 경쟁국들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핵심인력의 유출정도를 나타내

는 인력유출(Brain Drain)지수는 10점 만점에 4.70으로 39위에 위치하여 하위권을 기록하였다. 26)이처럼 경쟁력이 취약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면 크게 기술 격차와 노동시장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한국기업의 대중진출에 있어 심각한 선진국 대비 기술 격차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내 6대 주력 산업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75~80%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기술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자산업이 85%로 세계 최고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고, 다음으로 반도체(83%), 석유화학(81%), 조선(80%)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세계수출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4~7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27)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에 들어갈 핵심기술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과 기술 격차도 크지 않아 앞으로 5년 이내에 핵심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28)

총13개 대기술(99개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세계 최고 수준을 100%로 했을 때 우리나라기술수준은 평균 65.1%,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평균 5.8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 비교하면 기술수준 95% 이상인 핵심 일류기술수는 미국 88개, 일본 16개, 유럽 16개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중국은 이 범주에 들어가는 기술을 한 건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 중국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한국이 65.1%로 중국 52.5%에 비해 12.6%포인트 정도 밖에 앞서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우주항공은 중국이 69.2%로 우리나라 46.5%를 훨씬 앞질렀으며 나머지 12개 대기술 가운데 대부분이 한국과 10~20%포인트 안팎의 짧은 기술격차를 나타냈다.

26) 전경련 회원사 CEO중 300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기업경쟁력 평가조사에 의하면 선진국에 크게 뒤진 선진국 대비 약62%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7) 산업연구원, 한국제조업의 업종별 기술개발 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02. 11.

28) 매일경제신문, 2003. 12. 18 및 파이낸셜 타임즈(2003. 5. 19)에 따르면 2002년 한국의 기술혁신 수준은 조사대상 60개국중 5위로 평가되었지만,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기술격차의 요인은 R&D투자 규모에 있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표 4-21>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요기업들은 R&D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으나, 절대 투자규모에서 선진기업에 비해 미약하고, 국내기업의 매출액 대비 R&D비율은 2.6%로 선진기업 평균인 5.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21> 국내외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국내기업	R&D투자액/매출액(%)	선진기업	R&D투자액/매출액(%)
삼성전자	7.5	인텔	14.3
		노키아	9.6
		소니	5.7
삼성전기	3.8	지멘스	7.8
SK텔레콤	1.7	보다폰	0.5
SK(주)	0.5	액손모빌	0.3
현대자동차	2.5	GM	3.5
LG화학	1.8	듀폰	6.4
현대중공업	1.2	ABB	2.8
포스코	1.6	신일본제철	1.4
8개사 평균	2.6	10개사 평균	5.2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 기업경쟁력의 실상과 과제」, CEO Information, 2002. 12.4, p18.

둘째로 대중진출한 한국기업들에 있어서 핵심인력의 부족 및 낮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경쟁력 취약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경쟁력이 있는 전문 경영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핵심인력의 해외유출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IMD가 경쟁력있는 전문 경영 인력의 활용 정도 평가에 의하면, 한국이 38위로 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내 우수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과 현장 수요와 괴리된 교육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산업기술인력의 부족과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경직된 노사관계로 인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매우 낮은

것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4-22> 인적 자원 관련 경쟁력순위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핵심전문 경영인력의 활용정도	38위	1위	30위	49위	26위	21위
노사관계의 우호성	47위	15위	21위	38위	16위	7위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2.

노사분규로 인한 인구 1,000명당 노동 일수 손실 규모가 40일(2000년 기준)로 세계에서 9번째로 많으며, IMD의 노사관계우호성 평가에서 47위를 차지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기업의 경우에 경기침체시 인력을 신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노동시의 유연성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진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기업의 진출과제

국제경쟁력 측정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이미 실현된 무역을 통하여 나타난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을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수출의 중국시장 점유율을 <표4-24>에서 살펴보면, 2002.1-10월중 점유율은 9.5%로 전년동기(9.7%)에 비해 0.2%p 하락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對중국수출 증가율(16.5%)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만(39.3%), 일본(22.5%) 등의 수출증가와 중국 제품의 역수입 증가(70.6%)로 대만, 일본, 중국 등의 점유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즉, 2002.1-10월중 중국의 주요 국가별 수입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전체

18.7%로 싱가포르 30.0%, 말레이시아 47.4%, 독일 18.1%, 미국 1.4% 으로 나타났으나 국가별 점유율은 올해 들어 미국을 제치고 3위로 부상했다.

대만의 對중국수출의 큰 폭 증가는 전기·전자제품(60.5%), 기계류(40.8%)와 특히 광학기계류(244.3%)의 높은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중국산 제품의 역수입 증가는 홍콩 등 해외 중계무역상에 의한 중국산 제품의 중국 재수출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해외 중계무역상의 중국산 제품 對중국 재수출은 중국내 각 省간의 무역장벽과 정보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중국내 역수입 물품은 주로 기계류(91.0%증가)와 전기전자(97.9% 증가)제품으로 중국 역수입 총액의 약 70% 차지하며, 특히對中후자의 역대 최고치(2000년, 119억불) 갱신 예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국시장의 점유율은 오히려 2000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역수입), 대만, 독일, 말레이시아 등의 對중국 수출이 높은 증가를 보이면서 중국시장점유율이 큰 폭 상승한 것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4-23> 주요 국가별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국가명	2001.1~10(A)	2002.1~10(B)	(B-A)
대만	11.0 ②	12.9 ②	1.9
중국	3.5	5.0	1.5
말레이시아	2.5	3.1	0.6
일본	17.6 ①	18.2 ①	0.6
한국	9.7 ④	9.5 ③	-0.2
미국	10.8 ③	9.2 ④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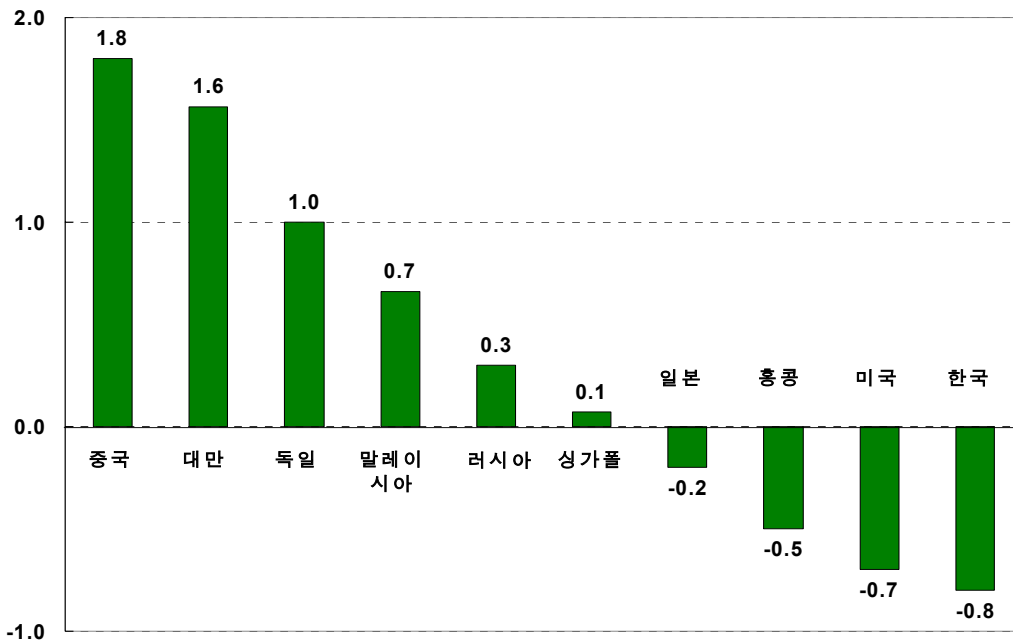
* ①-④는 중국수입시장의 국가별 점유율 순위

자료 : 중국해관통계자료 참조.

한편 <4-23>에서와 같이 2002.1-10월 현재 한국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9.5%로 2000년의 10.3%에 비해 0.8%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국(1.8%), 대만(1.6%), 독일(1.0%)순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우리나라(-0.8%), 미국(-0.7%), 홍콩(-0.5%), 일본(-0.2%)의 순으로 중국시장 점유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4-24> 중국 10대수입국의 중국시장 점유율 증감 현황

2000년 대비 2002.1~10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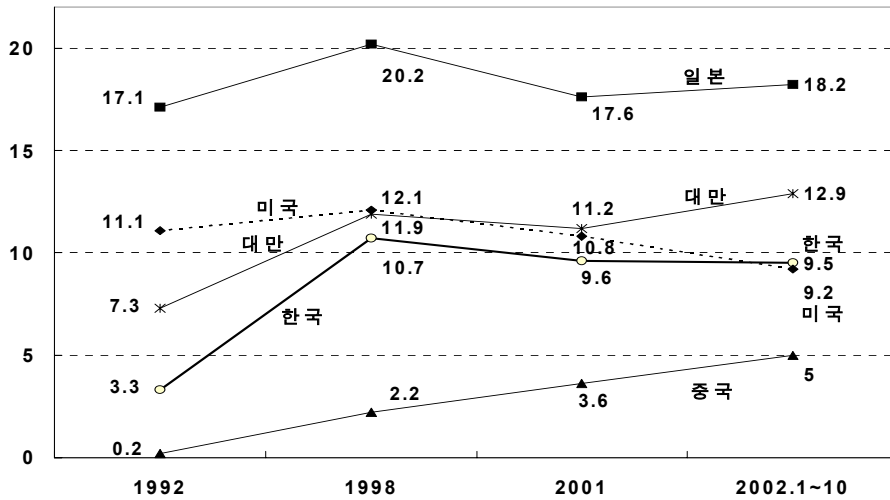
기간/국가	중국	대만	독일	말레이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일본	홍콩	미국	한국
2000 (A)	3.2	11.3	4.6	2.4	2.6	2.2	18.4	4.2	9.9	10.3
2001.1~10 (B)	5.0	12.9	5.6	3.1	2.9	2.3	18.2	3.7	9.2	9.5
(A-B)	1.8	1.6	1.0	0.7	0.3	0.1	-0.2	-0.5	-0.7	-0.8

자료 : 중국해관통계자료 참조.

한편, <표4-24>에서와 같이 한·중 수교이후 중국시장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1992년 수교당시 3.3%에서 2002.1~10월중에는 9.5%로 상승하였으나, 98년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25> 중국수입시장의 국가별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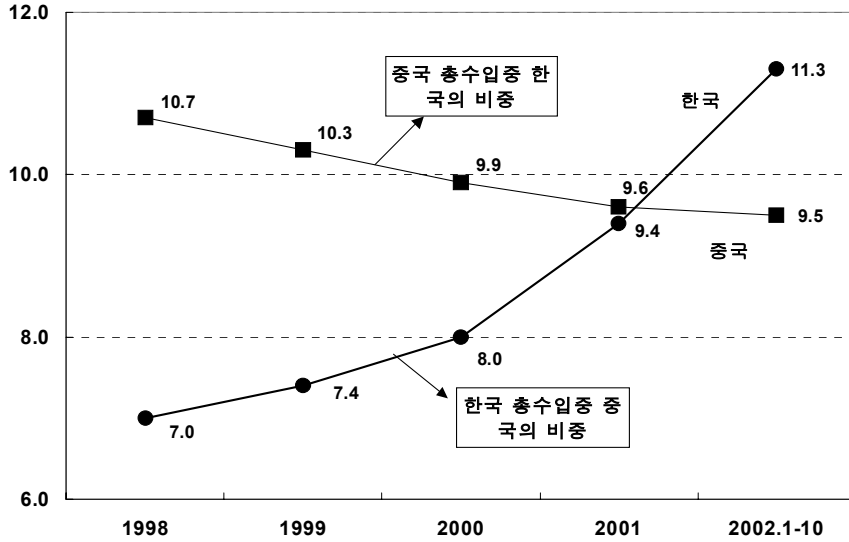
(점유율, %)



반면에 <표4-2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시장에서의 중국상품 비중은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중인 반면, 중국시장에서의 우리상품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기업의 대중국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표4-26> 상대시장에서 자국상품의 점유율

(점유율, %)



또한 중국시장내 주요 경쟁 품목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비교한 결과 <표4-2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기업은 석유제품 및 통신기기, 열연강판, 냉연강판, 플라스틱금형 품목에서는 1위를 고수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분야에서는 중국기업의 기술습득과 마케팅능력, 브랜드이미지등으로 인하여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27> 한·미·중·대만 간 주요 경쟁품목의 중국 시장점유율(%) 비교

(2003.5월 현재)

	석유제품	반도체	컴퓨터	컴퓨터부품	통신기기
한국	32.2(1위)	18.6(2위)	6.7(5위)	8.2(4위)	26.7(1위)
미국	2.9(8위)	25.8(1위)	11.4(3위)	15.8(3위)	7.4(5위)
중국	2.6(9위)	2.8(9위)	39.9(1위)	27.7(1위)	22.1(2위)
대만	-	18.0(3위)	11.7(2위)	18.4(2위)	4.3(7위)

	열연강관	자동차부품	통신기기부품	냉연강관	플라스틱금형
한국	49.2(1위)	6.4(6위)	6.5(4위)	74.1(1위)	51.8(1위)
미국	0.3(7위)	30.1(1위)	13.6(3위)	1.5(3위)	4.0(5위)
중국	2.6(3위)	8.3(3위)	44.4(1위)	-	15.6(2위)
대만	42.5(2위)	4.9(7위)	3.1(6위)	21.9(2위)	5.6(3위)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기업의 주요 수출국인 일본시장 점유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4-28>에서 1990년부터 2003년 5월까지 일본시장에서 각국의 수출경쟁력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의 일본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0년에 비해 순위는 상승하였으나 시장점유율은 다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중국시장에서와 유사한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표4-28> 일본의 10대 수입국가 및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억불, %)

순 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2003(1-5)	
	국가명	점유율	국가명	점유율	국가명	점유율	국가명	점유율	국가명	점유율
1	미국	22.4	미국	22.4	미국	19.0	중국	18.3	중국	18.7
2	인니	5.4	중국	10.7	중국	14.5	미국	17.1	미국	15.7
3	호주	5.3	한국	5.1	한국	5.4	한국	4.6	한국	4.6
4	중국	5.1	호주	4.3	대만	4.7	인니	4.2	인니	4.5
5	한국	5.0	대만	4.3	인니	4.3	호주	4.2	사우디	4.3
6	독일	4.9	인니	4.2	UAE	3.9	대만	4.0	UAE	3.9
7	사우디	4.4	독일	4.1	호주	3.9	독일	3.7	호주	3.9
8	UAE	3.8	캐나다	3.2	말레이시아	3.8	사우디	3.4	대만	3.6
9	대만	3.6	말레이시아	3.1	사우디	3.7	UAE	3.4	독일	3.6
10	캐나다	3.6	UAE	3.0	독일	3.4	말레이시아	3.3	말레이시아	3.2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기업들은 가격경쟁력(임금 및 노동생산성)에서는 선진국 및 중국등 신흥개발국에 비하여 모두 비교 열위에 있었으며, 비가격경쟁력의 분석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가격경쟁력중 핵심기술의 경우 R&D개발비의 절대적 열위와 브랜드이미지의 상

대적 열위로 인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비가격경쟁력의 경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제품의 브랜드와 결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개별기업 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하겠다.

중국시장에서 시장을 점유율의 저하 현상은 비단 중국시장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며 이는 전세계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의 저하를 의미할 수 있으며, 그만큼 전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함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결국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있다 하겠다. 다음장에서는 이러한 진출과제에 대한 대응책을 앞에서 설명한 기회 및 위협요인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 5 장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대응 방안

제 1 절 현지화 우위전략

기업이 해외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업에 대한 경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과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뚜렷한 차별적 경쟁우위를 갖고 있지 못한 한국의 기업들이 국제경쟁에서 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해외투자전략의 수행에 앞서 투자대상국 선정에 대한 이러한 사전조사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중복투자, 과잉투자 등으로 인한 투자의 부실화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투자 여부가 결정되면 연관된 조사는 물론 일본 등 경쟁국의 투자동향 및 성공사례 등에 대한 제반조사 및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LG전자의 노용악 중국지주회사 부회장은 중국에서의 사업성공을 위한 '5대 철학'과 '세부 10계명'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중국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에게 ①서양 시각으로 중국을 이해하지 말 것 ②중국을 하나로 보지 말 것 ③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하나가 아니라는 점 ④관시(關係)를 이해하고 활용 할 것 ⑤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중국의 미래를 보고 의사를 결정할 것이라는 5가지 사항을 기본 철학으로 간직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중국 사업 과정에서 우리기업들이 간직해야 할 10계명으로 ①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할 것 ②좋은 합작 파트너를 찾고 관계를 유지할 것 ③사업현지화를 적극 추진할 것 ④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승부할 것 ⑤중국에 맞는 독특한 마케팅을 개발할 것 ⑥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것 ⑦관시에 모든 것을 의존하지 말 것 ⑧회사내 최고의 인재를 파견할 것 ⑨중국직원을 동반자로 생각할 것 ⑩술선수범하고 희생정신을 가질 것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제3장에서 논의한 기회적 요인으로는 저비용 생산기지, 세계의 시장 및 공장, 거대한 인프라 개발수요와 풍부한 자원, 산업기술협력의 파트너,

고도성장지속가능성 , 화교경제 · 문화권의중주국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중국에 투자하고 있거나 신규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 볼 때 경제적 위협요인으로는 중국의 고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및 부실채권의 문제, 재정의 취약성, 실업증가 및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도 · 농간 심각한 소득격차, 디플레이션의 발생 우려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제4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기업의 가격경쟁력에서는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비가격경쟁력 요인인 기술수준, R&D투자비중, 브랜드이미지등에 있어서 선진국들에 비하여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크지 않아 중국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중국과의 경쟁력 비교에서는 자동차, 철강, 선박, 반도체, 통신기기, 고무타이어, 직물등에 있어서 경쟁적 우위를 지니고 있으며²⁹⁾, 마케팅능력, 유능한 CEO 및 전문가, 경영기법의 선진화등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⁰⁾

반면에 우리기업의 약점으로는 신발, 나무종이, 완구, 시계, 가구등 잡제품에서는 약점을 지니고 있으며³¹⁾중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임금 및 저생산성과 국내경제 성장율의 둔화, 노사분규의 심화, 국내내수시장의 협소, 지하자원의 부족, 핵심적기술의 부족등이 약점으로 파악되었다. 이에따라 우리기업은 선진국과 같이 무형자산우위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중국에 투자하기 보다는 개도국형의 현지화, 내부화, 정책 · 제도적 유인책에 기인하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국적기업들은 중국내 내수시장의 공략을 목적으로 현지화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왔다. 현지국의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유연한

29) 한국은행 “한 · 중 산업간 경쟁 및 보완관계 분석”, 2003. 10. 24. 보도자료 p6.

30) 산업정책연구원, “2003 IPS국가경쟁력 랭킹 발표”, 2003. 12. 16.

31) 한국은행, “한 · 중 산업간 경쟁 및 보완관계분석”, 2003. 10. 24. p6.

현지화전략은 현지국 시장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업경영방식으로서 현지국의 훌륭한 기업시민으로써 현지환경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에 부합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인적자원의 현지화, 원·부자재 조달의 현지화, 마케팅의 현지화, 자금조달의 현지화, 연구개발의 현지화 등이 필요하다.

중국 대외경제무역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2년말 중국내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은 1997년 보다 559만명이 늘어나 2300만명을 넘어섰다. 어느나라 어느 기업이든 중국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우수한 현지인력을 경영현지화 전략의 핵심에 두는 정책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된바와 같이 우리나라기업들은 인력 및 원부자재의 낮은 현지화로 한국기업들은 필요한 기계설비와 원·부자재의 상당부분을 한국에서 수입하여 생산하고 있다.

현지화전략을 통해서 인적자원, 원·부자재 조달, 자금조달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현지화는 인적자원의 현지화로부터 출발해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적기업들은 현지인을 실제적인 경영자로 활용하지만 한국기업에서는 현지인을 매니저 명칭을 주지만 중간관리직 역할에 불과하며 특별한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고급인력들은 한국기업에서 몇년 동안 근무하다가 구미기업이나 일본기업으로 이직하게 되며, 이직이유는 단지 더 많은 월급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연구도 있는데 실제적인 경영권을 부여하지 않고 구미기업처럼 평등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글로벌스탠더드나 한국식 경영만으로는 실패하기 쉬운데 중앙정부, 쑥과의 유대관계를 위하여도 ‘관시’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

최근 SK는 “중국에 ‘한국기업 SK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기업의 SK’를 세우겠다고 발표하였다. 여타 기업의 중국본사가 기획 및 조사기능을 치중하고 있는 반면, SK는 지주회사를 비롯 기업의 모든 기능을 중국내에서 완결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국내기업 최초로 중국사업 총괄대표에 현지인 IT전문가인 세칭씨를 선임하였고 중국의 우수인력이 국내 본사에서 몇 년동안 근무한

뒤 중국에서 일하도록 하는 교차근무 형태의 채용방식을 도입하였다.

인적자원의 현지화와 더불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은 원·부자재 조달의 현지화이다. 중국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원·부자재의 구입에서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경우 품질이 떨어지고 적기에 조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거래처와의 확실한 관계유지와 지속적인 품질에 대한 감독이다. 거래처에 관련기술의 지원을 통해서 현지부품업체와 좋은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원·부자재의 현지화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금조달의 현지화도 추진해야 한다. 운영자금의 대출은 한국계은행의 지점보다는 현지의 금융기관을 활용함으로써 현지금융계와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현지화전략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전략을 수행할 때 보수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소비수준이 높은 지역이 대도시임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한꺼번에 여러 지역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은 적합하지 않다. 중국의 상관습에 익숙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점 형태의 판매전략을 채택할 경우 매출은 증가하되 판매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지화전략중의 하나는 중국기업을 M&A를 통하여 외국기업이 지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중국내 유통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기존의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M&A에 의한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지인을 이용함으로써 현지시장개척에 도움을 주고 현지에서의 노사관리도 한층 쉬워질 것이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며, 기업이 미지의 현지화에 주력하여 현지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세계적 브랜드임을 물론 현지국 브랜드라는 점 역시 투자시점부터 홍보하여 투자국 고객들에게 친밀감, 애착심을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 2 절 경영 내부화 전략

중국시장은 아직까지도 외국기업이 소유하고 판매하는 지적재산이나 상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침해사태가 다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핵심적 기술이 아닌 중간 단계의 기술을 보유하고 경쟁해야만 하는 경우 수평적 내부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컴퓨터, 가전, 의복과 같은 분야에서의 경우 한·중간의 경쟁에서 경합에 있는 산업이나, 한국이 우위에 있는 산업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에게 우위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중국시장내에서의 특허권이나 지식권의 보호가 필수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섬유, 신발등 소위 국내사양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제품생산의 KNOW-HOW를 바탕으로 국내생산시설을 중국으로 이전·생산함으로써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우리나라기업과 같이 중국에서 현지생산후 수출에 주목적을 둔 투자의 경우 원자재 및 부품공장등 중간재를 조달하기 위한 수직적통합이 중요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원자재를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수 있느냐는 결국 우리기업의 해외경쟁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줌으로 수직적 통합이 중요하다 하겠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경쟁장벽이나 문화적 장벽이 높을 경우 내부화 수준이 낮은 진입방식, 즉 합작투자가 선호되며, 정치적 장벽이 높을 경우 내부화 수준이 높은 진입방식(단독투자)이 선택되며, 해외진입장벽이 높더라도 기업의 규모가 크고 해외사업경험이 풍부하면 내부화수준이 높은 진입방식이 선택된다.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정부는 합작투자에 대한 의무규정을 철회하고 대신 자국과의 합작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과 같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기업의 독점적 우위요인이 적고, 중국과의 중국시장 및 제3국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경우 내부화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여겨진다. 즉 적합한 현지 파트너를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애로점과 합작후의 트러블, 투자기업의 기술노출우려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부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2002년말 현재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총 15,429건에 304.5억 달러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100%지분형태는 9,134건에 193.9억 달러였다. 건수와 금액기준으로 각각 59.2%, 63.7%에 해당되어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기업이 100% 지분 출자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표면적으로는 내부화의 이론이 한국투자기업들에 잘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100% 지분 방식을 택한 기업들의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중소기업도 상당부분(500만불이하의 경우 건수기준 59.2%) 100%지분 형태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선진국의 전문 중소기업들과 달리 경쟁우위가 매우 취약하고, 이유도 시장확보 보다는 저임금 때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100%지분을 고집하는 이유는 약한 비교우위로 현지에서 막대한 외국비용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 경영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동기가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합작투자로 시장진입을 했다면 합작파트너의 관리문제로 상당한 경영부담을 우려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제 3 절 제도적 인센티브의 적극적 활용

제도적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산업구조조정과 서부대개발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지역적인센티브의 활용 방안을 고찰해 보면, 중국의 개방은 동부연해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외국인의 투자도 거의 모두 동부에서 이루어졌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 정부는 개방 초기에 동부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경제특구 등을 지정하여 그 지역 내에 설립된 기업에 대하여 조세경감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1979년에 경제특구(심천, 주해, 산둥, 하문, 해남)를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발구, 경제기술개발구, 하이테크산업개발구 등을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

것은 동부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부지역이 먼저 경제발전을 하고 그 성장의 동력을 타지역으로 확대시키는 전략 때문이다.

개혁개방 초기 동남부 연해지역의 先富를 이룩한 뒤, 중국정부는 富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부개발을 21세기 중국경제의 중점으로 정하였다. 서부는 중국 국토의 56%, 인구의 23%를 차지하면서 소수민족의 80%가 거주하고 있는 정치적 안정에 민감한 지역인데, 중국 빈곤인구의 60%가 이 지역에 있고, 가계소득은 서부가 동부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1979~1995년 17년간 동부가 매년 12.8%의 고성장을 한데 비해 서부는 8.7%의 성장에 그쳤다. 그러나 광물자원이 풍부해 120여종이 서부에서 생산된다.

중국정부는 서부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외자기업 세제혜택을 전면 취소한다는 결정을 서부지역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한다고 결정, 외자기업들의 소득세를 15%로 낮추고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전 국토를 벤처기업과 첨단 지식경제를 바탕으로 한 동부, 자원공급지대인 서부, 서부개발을 지원하고 동부의 산업을 계승하는 중간지대인 중부로 나눠 특색 있게 개발한다는 ‘전국토 3분 대개발 작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중국의 현대화를 완성한다는 취지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서부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 고급 기술인력 활용 및 잠재 시장에 대한 겨냥과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전략에 맞춘 ‘골드러시’를 연출하고 있다.

휴렛패커드사는 최근 섬서성 서안에 모두 8억 달러를 투자해 e 커머스 개발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휴렛패커드는 중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시에통과 협력해 앞으로 전자 상거래 관련 소프트웨어와 솔루션 개발을 통해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제공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IBM도 최근 서안에 세계적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IBM은 서안 소프트웨어 개발단지 내에 슈퍼컴퓨터 설치를 포함해 총 2천만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IBM이 설치할 슈퍼컴퓨터는 1000개 기업이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시설로 IBM은 향후 서안을 중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독일 지멘스 역시 사천성 성도에 본부를 두고, 감숙성 난주, 청해성 서녕 등의 통신망 설치 및 신강 위글자치구의 통신망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구미의 통신 및 컴퓨터 관련 업체가 서안과 성도 등에 진출하는 이유는 이지역이 중국의 항공산업 등 첨단 산업이 몰려 있어 소프트웨어 관련 고급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코카콜라도 중국의 중서부 음료시장을 겨냥해 서안과 성도, 운남성 곤명에 각각 코카콜라 병 생산 공장을 설립키로 했다. 코카콜라는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에 총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에너지 업체도 중국 서부의 풍부한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서부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엔론은 페트로차이나와 협력해 앞으로 청해성에서 감숙성까지 950km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엔론은 또 성도에 발전용량 249메가와트 규모의 화력발전소도 건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 셸도 중국석유공사와 창북 유전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타림분지와 신강 위글자치구 지역의 유전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프랑스의 비벤디는 최근 일본 마루베니와 공동으로 성도에서 중국 최초의 BOT(건설후 운영, 인도조건)방식에 의한 수도관 건설을 추진한다.

한편 최근 주중 미국상공회의소(ACCC)가 130개 중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8%가 앞으로 중국에서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구미기업과 일본기업들은 중국 중서부지역을 최후의 기회의 땅으로 보고 중국정부의 인프라 및 첨단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 기업에 있어서 중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산업과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산업구조 개선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업종은 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정부

의 외자유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진출에 있어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첨단업종이나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아시아 금융위기이후 내수둔화와 수출부진으로 인한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시행하고 고용창출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투자하려는 주요 사회간접자본분야는 주로 수리, 교통, 에너지, 통신, 환경보호 등 5개 부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간접 부문 확대가 한국기업에게 큰 기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주도적으로 중국 인프라 시장에 참여하기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진출에 앞서 소규모 진출을 통해 건설업계 인맥구축, BOT 분야에 시행추이 및 문제점 분석, 건설수주 관행 등 정보를 파악해 추후 본격적인 진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홍콩 등 외국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해 프로젝트의 일부를 하청 받는다면 중국 국영 건설업체의 프로젝트에서 관련용역을 맡는 등 큰 투자 없이도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직접 건설시장 진출과 함께 인프라 개발로 증가하는 장비, 설비시장 진출도 서둘러야 한다. 이 외에도 이동통신 단말기, 전화 교환기 등 통신설비 및 통신기지 등의 중국시장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개척노력이 필요하다.

제 4 절 무형자산의 경쟁력 강화 전략

무형자산경쟁력은 기업이 타기업과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기업을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무형

자산의 경쟁력 강화전략은 일종의 규모의 경제를 보이는 지적재산권(Proprietary Right)의 활용을 위한 해외투자이며, 카슨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이야말로 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자산이며 재산권의 소유가 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³²⁾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기술개발(R&D) 또는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마케팅활동 등의 변수가 해외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중요하며, 연구개발능력이 중심이 된 기술력 우위와 마케팅능력을 기초로 한 경영관리능력 우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경쟁적 우위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속적 우위 입장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쟁기업들이 쉽게 모방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경쟁적 우위만 가지고는 확고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기업의 경영목표는 지속적인 경쟁적 우위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 투자기업들이 계속하여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R&D에 노력을 경주하는 일이지만, 특히 중국과 같이 보다 유리한 노임과 노동력으로 추월해 오는 나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전념해야 한다.

기술개발은 장기적 투자와 장시간을 요함으로 단기적으로 중국시장 및 세계시장에서 다국적기업들과의 경쟁열위일 수 밖에 없으므로, 마케팅전략을 통해 단기적인 우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기업을 통해 접할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고급이미지에 포지셔닝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된다. 중국 소비자들은 고가 및 고급이미지 제품을 모방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한류 및 스포츠를 활용하여 최근 중국사회내에서 신장되고 있는 여성 및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³³⁾.

32) Casson, M. C., *The Firm and the Market: Studies on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the Scope of the Firm*, Cambridge, MIT Press, 1986, pp. 3~6.

33) 노키아는 중국시장의 선발진입자로 전 가격대의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으나, 후발주자인 삼성애니콜은 고가제품만을 판매하여 성공을 거두었음. 또한 태평양 아모레 립스틱은 중국시장에서 국내가격

기술이전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도 또한 요구된다. 중국정부는 주요정책중 하나는 “시장환기술”(자국시장과 외국의 고급기술을 맞바꾸는 것)로 중국시장에서 기술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기업의 모방능력이 빠르게 신장하고 있고 지적소유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당한 기술이전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고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으로 보인다.

제 5 절 시장의 세분화 및 차별화전략

우리기업의 경우 뚜렷한 경쟁력 우위 요인이 없을 뿐만아니라 중국시장의 경우 지역간, 산업간 격차가 심할 뿐만아니라 소득격차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시장을 세분화하여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자해야만 할것으로 여겨진다. 목표시장 설정을 위한 시장 세분화(Market Segmentation)는 중국 시장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중국은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a single gigantic unified market)’이 아닌 ‘수백, 수천개의 분할시장이 모인 집합체(a collection of small segmented markets)’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중국시장은 민족별, 지역별, 계층별, 직업별, 연령별로 다양한 소비집단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들 집단 간의 소비성향 또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단을 목표시장으로 설정하느냐가 성공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 중국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전체시장을 상대로 판로개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1979년에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이미 연매출액이 백억원에 임박하는 코카콜라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무차별마케팅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1999년에 처음으로 중국광고회사에 의뢰하여 중국인이 출연하는 젊

보다 3배 가까이 높게 팔리고 있으나 반응이 좋으며, 하이파이브는 철저한 고품질, 고가전략을 고수하여 고급브랜드를 선호하는 중국 소비층을 공략 하는데 성공하였음.

은 층에 어필하는 광고를 제작함으로써 목표시장을 좁혔다. 우선 중국에는 동부지역과 남부지역이 부유하고 서부지역과 북부지역은 가난하다는 지역특징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지역을 연해지역과 대도시 지역으로 한정하여 보면 동 지역은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 지역선정과 함께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수립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제 6 장 결론

21세기에 세계경제의 가장 역동적인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그 어느때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지않은 기업들의 철수 및 파산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부화뇌동식으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닥치면 한다는 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중국의 WTO가입, 2008베이징 올림픽개최, 중국의 고도성장 등 중국의 거시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다국적기업들은 종전의 對중국 투자전략을 글로벌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간주하며 투자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국적기업이 중국의 WTO가입 전후 투자전략 변화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전략 조정, 제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베이징 등의 투자지역 집중화, 단독투자 강화, 인수·합병에 대한 관심 증가로 파악되었다.

또한 기술이전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에 필요한 기술 및 관련 응용기술의 지속적이전과 중국 내수시장 지향의 응용기술센터 설립등이 기술이전의 특징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아직까지도 저임금 노동력 확보가 주요 투자 동기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투자가 여타지역에 비해 비중이 높고 투자규모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역별로는 환발해만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투자형태에 있어서는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경영상의 애로 요인으로는 중국의 법적·제도적 환경의 미비와 통관 및 세무, 대금회수, 현지상관습, 언어장벽, 인프라미비 등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가 중국시장의 특수한 성격과 한국기업의 비교 경쟁력을 근거로 제시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투자 활성화전략은 크게 여섯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사업타당성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투자하는 우리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저임금 활용과 13억이라는 거대한 중국시장의 매력에 빠져 중국의 시장 환경 및 경쟁 환경, 내부의 역량 등에 대한 사전 준비없이 투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기간내에 중국으로부터 사업철수가 이루어지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현지화 능력의 제고이다. 인적자원의 현지화, 원·부자재 조달의 현지화, 마케팅의 현지화, 자금조달의 현지화, 연구개발의 현지화가 필요하다.

즉 OEM 등 방식으로 다국적기업에 제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 다국적기업은 중국에 많은 구매센터를 설치하여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도 국제적인 품질인증의 획득을 통해 우리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기업의 생산기술이 중국보다 앞선 점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가격경쟁의 열세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는 국내외 경영내부화 강화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컴퓨터, 가전, 의복과 같은 분야에서의 경우 한·중간의 경쟁에서 경합에 있는 산업이나, 한국이 우위에 있는 산업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에게 우위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중국시장내에서의 특허권이나 지식권의 보호가 필수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섬유, 신발등 소위 국내사양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제품생산의 KNOW-HOW를 바탕으로 국내생산시설을 중국으로 이전·생산함으로써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우리나라기업과 같이 중국에서 현지생산후 수출에 주목적을 둔 투자의 경우 원자재 및 부품공장등 중간재를 조달하기 위한 수직적통합이 중요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원자재를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기업의 해외경쟁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줌으로 수직적 통합이 중요

하다 하겠다.

네번째로는 제도적 인센티브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하겠다. 중국정부는 도·농간,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부지역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최첨단기술을 가지고 중국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이 주투자 업종이나, 중국의 제조업시장은 이미 공급과잉으로 인해 매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우리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환발해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임금상승으로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위해서도 중국현지내 연구개발시설 및 유통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다섯째로는 무형자산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무형자산경쟁력은 타기업과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기업을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도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며, 브랜드이미지도 낮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비교열위로 전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 투자기업들은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전념해야 한다. 중국 소비자들은 고가 및 고급이미지 제품을 모방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한류 및 스포츠를 활용하여 최근 중국사회내에서 신장되고 있는 여성 및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로는 세분화 및 차별화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중국은 지역별로 외부환경이 상이함으로 시장을 세분화하여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집중 공략하는 것이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유능한 국제경영인을 육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시장을 지니고 있으며, 고성장의 지속으로 구매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기업의 경제활동 전략에 있어서나 정부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중국을 ‘變數’가 아닌 ‘常數’로 감안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계속연구되어야할 과제를 덧붙여 둔다. 본 연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투자환경을 고찰해 보고, 우리나라기업의 투자전략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으나, 문헌에 의한 개괄적 고찰이라는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이론적 모형을 근거로 제시한 현지화, 내부화 및 무형자산과 제도적 인센티브의 활용과 같은 중요한 진출전략은 그 동안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안일했고, 한국기업들의 대중진출에 대한 중요한 사업타당성의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며 향후 보다 깊이있는 현장 지향적 연구가 거듭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만들어가는 의지적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김익수, 「중국투자론 -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9. pp333~334.
- 김주영, 「한국의 대중국투자 10년의 평가와 전망」, 2002, 한국수출입은행.
- 문휘창, “해외직접투자 동기, 글로벌 조정 및 진입유형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2002. 11권 , pp 1-5.
- 신현수, 「최근 수출호조는 일시적인가」 산업연구원, 2003.
- 이장로, 신만수 [국제경영], 홍문사, 2003.
- 조동성, “국제경영학 제2판”, 1993, 경문사 ,pp233-262.
- 진기주편, 「二千年中國의自然資源」, 상해인민출판사,1988.PP70-71.
- 정영록·이종건, “중국경제의 부상과 우리나라의 산업정책방향”, 한국은행 2003.
3월호
- 최용록 「해외투자론」 박영사. 2000, pp 78~79.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현안 브리핑”, 02-30호, 2002. 4. 8.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현황과 전망」, 1997.
- 대한상공회의소,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경영실태와 장애요인」, 1998.
- 대한상공회의소, 「중국진출기업의 진출목적 및 애로사항 조사」, 2002. 8.
- 대한상공회의소, “중국진출기업의 진출목적 및 애로사항 조사”, 무역일보 46호
(2003. 10.27) pp78~80.
- 삼성경제연구소 「WORLD REPORT」 제71호 P 22~23.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기업경쟁력의 실상과 과제」, CEO Information, 2002.
12. 4. p18.
- 산업연구원, 한국제조업의 업종별 기술개발 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02. 11.
- 산업정책연구원, “2003 IPS국가경쟁력 랭킹 발표”, 2003. 12. 16.

한국경제연구원, 2003. 8. 1. 보도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투자 우리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 1995. p7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3. 4. 4. 보고서

한국수출입은행 각년도 통계

한국은행 각 연도 통계

한국은행, “한·중 산업간 경쟁 및 보완관계 분석”, 2003. 10. 24. p16.

파이낸셜타임즈, 2003. 5. 19.

매일경제신문, 2003. 12. 8.

KOTRA, 중국의 주요 개발구 투자환경과 진출사례, 200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각년호.

중국노동통계연감.

중국해관통계자료.

중국통계연감 각년도.

Bureau of Labor Statistics, *International Comparison of Hourly Compensation Costs for Production workers in Manufacturing*, September 2003.

Bruce Kogut, *Foreign Direct Investment as a Sequential Process, in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the 1980s*, edited by kindleberger and Audrestch, 1982, p41.

Buckley, P. "A critical view of theories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1985.

Cassan, M.C., *The Firm and the Market: Studies on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the Scope of the Firm*, Cambridge, MIT Press ,1986.

Dunning, . J ,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 George Allen & Unwin,1981.

EIU

-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Franklin R. Root,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5th ed., Clincinnati : South-Western Publishing Co., 1984, p.455.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2.
- John H. Dunning,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1981, Chapter2.
- Johnson, H, "The efficiency and welfare implic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In C. Kindleberger, 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1970.
-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2003.
- Porter. M.,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 The Free Press, 198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www.kiep.go.kr.
- 대한상공회의소 : www.korcham.net.
- 산업자원부 : www.mocie.go.kr.
- 삼성경제연구원 : www.seri.org.
- 전국경제인연합회 : www.fki.or.kr
- 한국개발연구원 : www.kdi.re.kr.
- 한국무역협회 : www.kita.or.kr.
- 한국수출입은행 : www.koreaexim.go.kr.
- 한국은행 : www.bok.or.kr
- 현대경제연구원 : www.hrizine.com.
- LG경제연구원 : www.lgeri.com
- KOTRA : www.korta.or.kr

감사의 글

먼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오늘 이 영광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이 글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만학의 부족한 제자에게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학문의 길을 열어주신 지도교수 최용록 교수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부족한 제 논문을 정성으로 심사해 주시고 귀한 의견을 주신 최익만 교수님, 김종현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해주신 임춘기 행정실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이 있기까지 많은 배려를 해주신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님, 가천길대학 임청 학장님, 가천의대 길병원 이선훈 행정부원장님, 가천길대학 김용중 총무처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과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준 가천길대학 강운구 교수님, 가천의대 이정래 시설관리팀장님, 이창구 경리팀장님, 경원전문대학 윤창기 총무팀장님, 가천길대학 한종호 팀장님, 조상곤 계장님, 특히 윤선욱 선생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학위 과정동안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신 강병성 사장님, 우승완 사장님, 김기주 사장님, 이상열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신 부모님께 조그마한 선물로 이 논문을 드리면서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또한 가까이서 항상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님과 형님을 비롯한 모든 형제들과 처남, 처제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오늘이 있기까지 사랑과 정성으로 내조하며,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 준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이 논문을 사랑의 선물로 바치며 사랑하는 나의 아들 재원, 지원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2003년 12월